

수용자 종합문예지

통권 449호 | 2020 봄 호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직원 수필 | 테마원고 | 소감문 | 수기 | 기획기사 | 용서의 글 | 시 | 수필 | 독후감 | 서간문 | 감상문

2020 | 분
행 권 449 | 연

세 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2019년 봄호 (통권 449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0년 3월 10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윤창식 발행처 : 법무부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회복귀과 : (02)2110-3438
e-mail : saegil@hanmail.net

CONTENTS | 목차

직원 수필

- 04 어머니와 인절미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위 조도현
- 06 봄이 우리를 불러내고 있으니 | 정읍교도소 교사 안상현

테마원고 - 봄나들이

- 08 봄나들이 갑니다 | 최성규
- 09 조각난 구름 | 김진규
- 10 봄나들이 | 이경로
- 11 봄 속 희망 | 위석환
- 12 봄나들이 | 전영민
- 13 그럴 수 있을까 | 양민화
- 14 빨래 | 문정윤
- 18 엄마의 고깃배 | 권정희
- 20 한파 속의 봄나들이 | 정원선
- 23 꽃눈 내리는 봄날 | 채규철
- 26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 김효기
- 28 봄나들이 | 홍정표
- 32 봄나들이 | 한만기
- 35 봄나들이 | 류기호
- 38 봄나들이 | 정삼주

소감문

- 41 감사 나눔 쓰기 공모전에 참여하고 | 양태하
- 43 직업훈련 교육을 마치며 | 천재호
- 45 새로운 길 | 이정환
- 47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 유정식

수기

- 49 믿음, 소망 | 이상규
- 52 돌아가신 어머님께 용서를 빌며 | 한동준
- 54 수기 공모작 | 이미경

기획기사

- 57 한반도의 허리, 민족의 젖줄 - 아리수 | 동덕여대 교수 김상철

용서의 글

- 65 엄마 죄송해요 | 윤현수
- 67 용서를 구합니다 | 임홍덕
- 70 용서를 구하는 글 | 반상윤
- 72 용서를 구합니다 | 최준혁
- 76 용서를 구합니다 | 김영민
- 78 사랑하는 어린 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조은비
- 81 용서를 구합니다 | 정우철

시

- 83 밤하늘 | 차대영
- 84 조금 타는 낭 | 정석범
- 85 얼음토마토 | 권기수
- 86 당신모습 | 서인철
- 87 유기견 | 최용석
- 88 내 방에서 본 작은 하늘 | 김동선

수필

- 89 안산의 봄 | 김태성
- 91 봄은 어디에서 오는가 | 현동주
- 93 관계의 온도 | 김황수
- 95 소망 | 신성호

독후감

- 98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읽고 | 김영상
- 103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를 읽고 | 김형돈
- 106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를 읽고 | 박활주
- 109 『소 소 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을 읽고 | 최민우

서간문

- 112 세월은 채워지는 것이다 | 정광부
- 114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야! | 박병오

감상문

- 117 새길 「겨울호」를 읽고 | 김정재
- 120 새길 겨울호를 읽고 | 박용우
- 123 새길 겨울호를 읽고 | 문병익
- 126 새길지를 읽고 | 최대호

어머니와 인절미



조도현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위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사이의 C”라고 말했다. 인생은 태어나서(Birth) 죽을 때까지(Death) 선택(Choice)의 연속이라는 말이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 것 같다. 젊어서는 직장, 결혼문제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놓이게 되고 장년이 된 지금은 집, 건강문제로 또 선택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도 있다.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TV프로 중에 “이○○의 인생극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상황을 설정해 놓고 중요한 순간에 A의 선택을 했을 때와 B의 선택을 했을 때 벌어지는 완전히 정반대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나와 동생 아니,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6살 무렵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벌써 40년도 전의 일이다. 내가 6살, 동생이 4살 무렵이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아 어려운 살림에 우리 형제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다. 어머니는 그중에서도 인절미 떡을 잘 만드셨다.

인절미를 만드는 과정은 찹쌀을 가마솥에 찌서 절구에 붓고 떡메로 열심히 치면 먹음직스런 인절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떡메로 열심히 내려치는 이 과정이 가장 힘이 들고 중요한 순간이다. 이 과정을 마치면 90%는 인절미가 다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넓은 떡판위에 납작하게 펼치고 콩가루를 문혀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면 되는 것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 인절미 떡을 만들고 계셨다. 힘들게 떡메로 열심히 쪼은 떡을 넓은 떡판에 옮기시고 어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잠시 안방에 들어가셨다. 나와 동생은 떡판 옆에서 떡을 떼어먹기도 하고 흉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동생이 오줌이 마려웠는지 그만 떡판 옆에서 오줌을 누워 떡판 위의 인절미에 튀었고 그 광경을 마침 방에서 나오시던 어머니가 보고 말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떡판위의 인절미를 들어다가 거름자리에 버리셨다. 나는 어머니를 뒤따라가 치마를 부여잡으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다가 물로 씻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아깝게 버리려고 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시며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소중한 음식을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만들어 팔수는 없는 일이라고 타이르셨다. 지금까지도 나에게서는 그때의 일이 충격으로 생생히 남아있다.

벌써 40여년이 흘렀다. 나와 동생은 어느덧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불행히도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셔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지는 못하지만 나와 동생은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의 인생극장”에서처럼 만일 어머니가 떡을 버리지 않고 내 말처럼 떡을 씻어서 시장에 내다파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처럼 우리형제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다.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백 마디 말보다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어머니의 교훈을 나와 동생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번 주말에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인절미를 사가지고 병문안을 다녀와야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봄이 우리를 불러내고 있으니

안상현 | 정읍교도소 교사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겨울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다고는 해도 모든 생명체에게 여전히 겨울은 나기 힘든 계절임이 분명하다. 추위와 한파 그리고 폭설이 이어지는 석 달간의 시간을 일부는 즐기기도 한다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공평하다. 마치 생로병사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순연히 받아들여야 할 한 인간으로서의 운명적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듯이...

허나 봄은 분명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계절이다. 별이 높고 기온은 오르며 싱그러운 꽃이 지천에 피어 어딜 가든 아름다운 경치가 쉬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 속에는 향긋한 봄 향기를 흠뻑 담기 위해 들숨과 날숨을 깊이 내쉬게 된다. 개나리가 성질이 급한지 제일 먼저 꽃 동이를 피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진달래가 제 순서를 지켜 온 산야를 붉은 빛과 보랏빛의 중간색으로 물들인다. 그리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게 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까지가 절정이고 일주일이면 이 벚꽃은 미련 없이 시들고 만다. 기다림은 너무나 길데 나타나고 보여준은 너무나 짧아서 살짝 알밋기도 하지만 가장 강렬한 황홀경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는 꽃 중의 꽃이라 가히 말하고 싶다.

전주에서 정읍으로 근무지를 옮긴 지 5년이다. 전주에서는 벚꽃 철이 되어도 그냥 출퇴근 시간에만 결눈질로 즐겼는데 이 곳 정읍은 정읍 천에서 내장산까지 이어지는 4킬로미터 되는 벚꽃 길이 가히 장관이어서 해마다 벚꽃이 만발할 때면 일부러 휴가를 내서라도 봄의 향연을 만끽

하게 된다. 3월 말에는 해마다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가 일주일간 계속되어 낮에는 벚꽃의 자태를 감상하고 저녁에는 공짜로 음악공연과 각종 전시회를 감상하는 호사(?)를 누리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는 벚꽃 길 주변에 색색의 야간 등을 달아 놓아 인공 빛에 반사되는 벚꽃의 모습이 낮보다 더 아름다울 때도 있으니 시간이 없는 타 지역민은 저녁이나 밤에라도 꼭 시간을 잠시 내어 정음의 벚꽃을 감상해보라고 권하는 바이다.

벚꽃이 눈물을 흘뿌리듯이 우수수 지며 슬피 이별하여도 나는 이별이라 여기지 않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그리고 슬퍼할 겨를이 없이 바로 인근 고창 선운산으로 향한다. 선운산에서는 유채꽃의 산통(?)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꽃은 만개한 후가 아니라 피기 직전의 모습이 가장 절정이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던가? 나 역시 그것을 안 지 오래이기에 서둘러 선운산으로 향하고 43년 만에 귀한 사실을 알게 된다. 아니 깨닫게 된다. 꽃은 하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집으로서 집단의 생을 유지해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꽃이 지면서 다른 하나의 꽃을 불러내고 그 꽃은 또 멸하기 전 자신의 생을 이어받을 또 다른 꽃을 점찍어 놓는다는 것을. 꽃끼리는 서로 다짐도 받는다. '최대한 오래 머물다 가되 이 세상에 지루함을 주지는 말 것,' '싱그럽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너무 스스로 뽐내지 않아도 봄은 수많은 이를 꽃 앞으로 불러 모으니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으로 자기다움만 지킬 것.'

나는 봄이 참으로 좋다. 어렸을 적에는 부산하고 일이 많아지는 계절이라 좋아하는 철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봄이 좋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았던 대지, 모든 것이 없어진 줄 알았던 대지에 다시 새 생명이 움트고 싹을 틔워내는 것을 보면 보잘 것 없는 나도 조그만 희망을 품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된다. 밖은 북풍한설이어도 안에는 온기를 머금어 한없는 자애로움으로 품어주는 대지가 있고,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강한 의지의 생물체들이 있기에 언젠가는 꽃과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리라. 아직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본받으며 끝까지 나의 때를 기다리고 의지를 놓지 않으리라.

봄나들이도 맘껏 즐길 수 있고 삶의 성찰도 능히 할 수 있는 새 봄. 봄 앞에 붙는 수식어가 '현'이 아니라 항상 '새'임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봄이 없으면 여름이 없고 여름이 오지 않으면 가을과 겨울도 없다. 봄부터 잘 즐겨보자. 봄을 잘 즐기고 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이는 겨울의 삭막함도 삶의 여유로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철인(大哲人)으로 언젠가는 되어 있을 것이다. 봄이 왔다. 일단 나가고 보자. 내가 봄을 기다려 온 것이 아니라 봄이 우리를 불러내고 있으니.

봄나들이 갑니다

최성규

아직 날이 찬데 집에 계시지
꽤않다
아버지 몸은요
꽤않다
어머니 무릎은요
꽤않다

어머니
아직 길이 미끄러워요
꼭 아버지 손 붙잡고 가세요
내년엔 꼭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꽃구경 갈게요

오다보니
개나리 꽃망울이 맺혔구나
바람은 차도 햇살은 푸근하다
이제 겨울도 다 갔다
늙었다고 집에만 있음, 병난다
네 엄마 손 붙잡고
봄나들이 온셈친다

작품평

시는 화려한 수사기 아니라 삶 속에, 인생 곳곳에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모습 안에 이미 시가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소한 자연 속에 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보편성을 갖고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 노부부가 손잡고 집을 나서 시는 모습에 콧등이 시큰해집니다.

조각난 구름

김진규

참새가 날아왔다.
고양이도 다녀간다.
풀, 꽃들은 이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 한다.

비가 내려 온세상이 깨끗해졌다.
하늘은 하늘이고, 바람은 바람 그대로인데
구름은 조각이 나 버렸다.

아픈 마음 달랠 길 없어 서럽게 아프게 고뇌하다가
결국 눈물을 터트렸다.

밤새 조각난 구름의 눈물로 우리는 밤잠을 뒤척였고
참새도 고양이도 풀, 꽃들 모두가 위로하는 듯 나에게 다녀갔다.

조각난 인생의 구름속에 머금은 눈물이여
나도 너도 모두다
눈물이 많지만 쉽게 울지는 말자
꼭 필요한 어느 날에만 “단비”로 서로 만나자구나
모두가 안쓰러워 하는 날이 아닌

모두다가 반기는 어느날에...

작품평

구름도 나도 눈물이 많지만 쉽게 울지는 말자, 이 한 문장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꼭 참고 견디면서 해야할 다짐 같은 것들을 위한 마음이 읽힙니다. 눈물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울고, 눈물을 그친 뒤에는 울면서 다짐했던 마음을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봅니다.



봄나들이

이경로

남쪽 저 멀리 아랫녘 작은 포구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 한 자락
빈 하늘 맴돌며 해찰스레 살랑이다
입춘방 어느 틈에 방방곡곡 나부끼자
부랴부랴 봄비 챙겨 한달음에 달려온다

살 에는 삭풍 머물렀던 산골 벽촌
실개천 얼음 깨는 우르릉 우렛소리
화들짝한 개구리 얼떨결에 선잠 깨어
해살 놓고 능청 떠는 봄기운 나무라자
마지못해 나무마다 연두 옷을 입혀 준다

겨울 별 쉬어가던 먼 산 아래 언덕배기
느닷없이 흩뿌리는 후두둑 때 이른 비
겨우내 내려앉아 두툼히 덮어 주던
하얀 눈이불 고스란히 걷어듬에
키 작은 애기 보리 살며시 세상을 만난다

세상이 이렇게
나 대신 봄나들이를 시작했다

작품평 생명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봄의 에너지들은 사람에게도 닿는 것이어서 사람 또한 봄을 기다립니다. 연둣빛 봄을 바라보는 것도 봄나들이입니다. 긴 겨울 같았던 마음을 툭툭 털고 일어서는 인생의 봄을 기다리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테마원고
시

봄 속 희망

위석환

긴 세월만큼 멀어졌던 너울이 밀려오면
나는 파도가 되어 저 등대에 부딪치고 말거야

발이없는 그리운 상념이 제각기 몸부림쳐
불꺼진 등대에 부딪혀 불이 켜진다면
나는 부딪치고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나는
또 파도가 되리라

미소짓는 그리움이 불꺼진 등대 불빛을
따라 항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깨지고 찢겨 부서져 거품이 되어 울지라도
등대를 찾는 파도가 되리라

너와 나의 쓰라린 사랑과 그리움을 겨울에서
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못난 가슴으로
바다의 어머니를 불러 파도가 될
너울을 찾아 나는 또 등대를 찾는 파도가
되리라

하늘과 땅이 가로막고 무풍이 계절을
바꿀지라도 나는 파도가 될 너울을
기다리며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사랑을
굴리는 쇠통구리가 되리라

작품평

어느 누구의 인생도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봄은 매년 새봄으로 옵니다. 어느 계절도 '새롭다', '처음'이란 '새'가 붙질 않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을 때 보이는 등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사랑의 힘으로 봄은 또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봄나들이

전영민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나들이 가자

제 어미 아닌양 들은체도 안하고
온종일 장난감과 씨름만 했다가

버들잎이 들을세라 조심히 물어오는
작은 소리의 나들이 가자

온 세상 공부는 제 혼자 하듯이
고개 숙여 알은체도 안했는데

전화기 너머 중년아줌마의
한결 수척해진 나들이 자랑을
들은 체 만 체 끊어버린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봄이었습시다

하루종일 그리워해도 닿을수 없는
오늘은 따뜻한 봄날의 나들이가
무척이나 그리운 날입니다



작품평

고백은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봄날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뒤늦은 고백을 아버지도 하셨을지 모릅니다. 자식의 고백을 자신의 가슴으로 벌써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봄이 올 때마다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도 새롭게 오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릴 수 있을까

양민화

봄나들이 뽕뽕
그 어린 날 설레었던 그 마음을
이제 와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분홍리본 반짝이 구두신고
엄마손 잡고 나들이 가던 어린 시절 기억을
꿈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릴 수 있을까

양손 끝 저릿저릿
수많은 날들 후회로 젖은 그 마음을
이제 와서 다시 바꿀 수 있을까
따뜻한 희망 채워 분홍빛 사랑 채워
당신 손잡고 나들이 가는 그 소망을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피울 수 있을까
그릴 수 있을까

마음 속 몽글몽글
느린 대낮을 지나 긴 밤을 날아서
희망이라는 나들이 떠날 수 있을까
이쁘게 채워 담은 도시락 주머니 양손에 들고
나를 보듬어 웃으며 당신을 향해 웃으며
우리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릴 수 있을까
그렸으면 좋겠네



작품평 뜻을 두어야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진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도 함께 간직해보면 좋겠습니다. 희망하는 것들 마음에 두고 살면 마음 먹은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을 봄을 통해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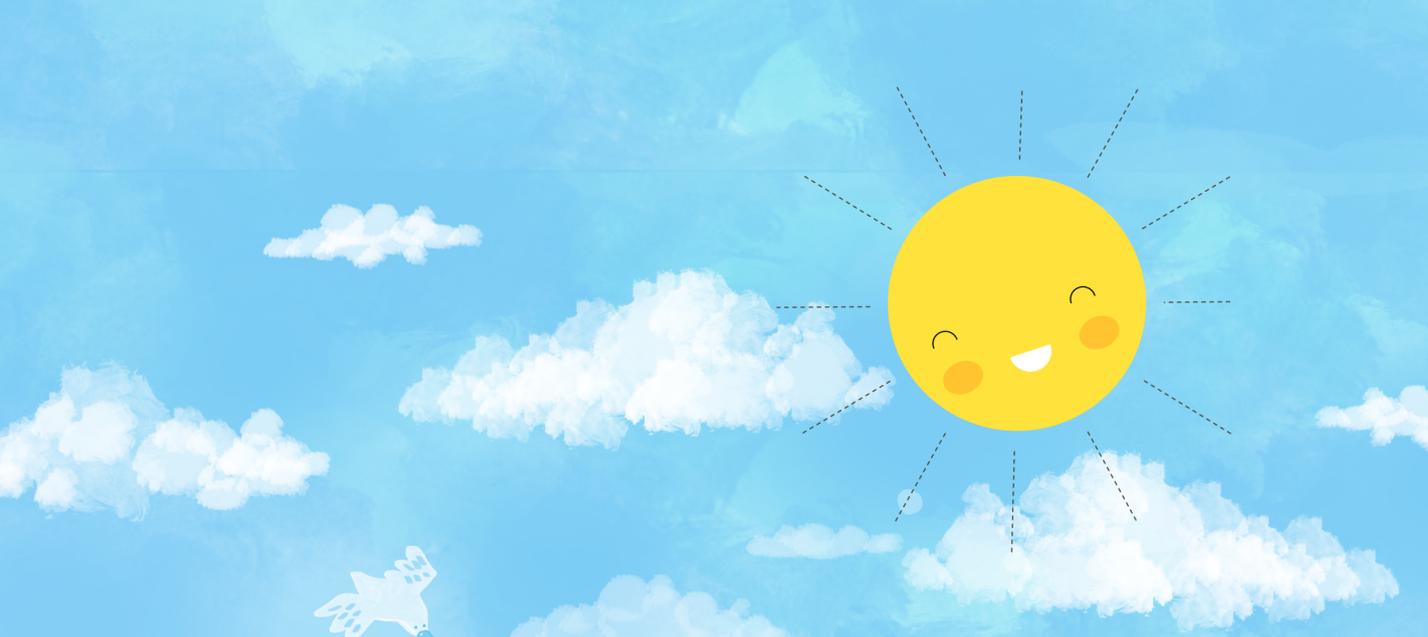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빨래

문정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글을 쓸 때에는 새해가 밝은 4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봄이 겹쳤지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양할 겁니다. 기결이 되어 모든게 마음 편한 사람도 있을거고 미결이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 신경쓰여 가족들 생각에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수를 여러 번 해서 교도소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신테고 처음인 이 곳이 낯설어 장난치고 웃는 것을 삐딱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출소 후나 지금, 인생이 끝났다고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선 그런 사람들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봄날을 맞이할 인생은 끝나지 않았 습니다. 이 인생은 여기서의 인생이든, 밖에서의 인생이든 봄날은 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올테니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면 우울한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장님도, 주임님도 저희가 무사히 출소 하시기를 바라시고, 힘쓰시고 밖에서는 소중한 사람들도 무사히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 같은 날은 언젠간 떠나가고, 다가올 봄날을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미세먼지만 보고 있다가 온 줄도 모른채 지나가지 마시고 비록 이 곳에서지만, 여기서라도 꾸역 꾸역 자라나고 있는 꽃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봄날을 맞이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에피소드를 새길을 읽고 계실 여러분께 바칩니다.

여기에 들어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편지로 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나들이는 고사하고 가족 여행조차 꿈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집에 딸린 미용실을 운영하시느라 어디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두 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동생과 살았는데 그때는 봄나들이는 고사하고 명절에 친척집에 가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 ‘봄나들이’는 아니지만, 봄나들이 같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그 날 늦잠을 잤습니다. 고3 졸업하고 바로 시작한 아르바이트 중, 겨우 얻은 휴일은 꼭 늦잠을 자야 하니까요. 그 날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많은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미용사이신 어머니는 저를 굶지않게 키우시겠다고 손님이 오셔도 바쁜 와중에도 아침은 꼭 챙겨 주셨는데 늦잠 잔 제가 못마땅 하셨는지 아침도 직접 챙겨 먹으라고 하시고는 저희 집 옆에 있는 밭으로 일하러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빨래 돌려 놓지 않으면 저녁밥은 없다는 으름장도 잊지 않으셨습니다(안해도 챙겨주시겠지만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 날이라 정말로 간절하게 쉬고 싶었기에 그 날 따라 정말로 집안일을 하고 싶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버틸까 하다가 발일 하고 오시면 피곤할 어머니를 생각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더 많은 세탁기 일명 통돌이가 빨래를 해 주는 것이라 제가 할 것은 얼마 없었지만 마지막 탈수 전에 섬유 유연제를 넣어야 하는 것을 기다려야 했던지라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통돌이가 낡은 소리를 내며 마지막 탈수를 마치고 ‘삐삐삐’ 소리를 내어서 TV를 보고 있던 저는 쉬고싶어하는 마음을 이끌고 세탁기로 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빨래를 꺼낼 때 거의 통돌이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힘들게 꺼낸 빨래를 대야에 담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집이 가게고 주택이라 무조건 빨래 건조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저희 발 옆에 놓아야 했습니다. ‘햇살에 놓아야 세균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는 발으로 나갔습니다(저희 어머니는 손님이 안 계실때는 발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귀찮음에 입을 삐죽 내밀며 나오니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따뜻한 봄 햇살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고추모종을 심고 계시는 어머니 보시라고 일부러 귀찮은 티 팍팍내며 옆에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널고 있는 제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갈색 길고 긴 무언가. 처음에 돌인줄 알고 걷어차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똥’이었습니다. 분명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가 그 곳에 지나가는 길에 싸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때 짜증이 엄청 나 있었기에 똥을 보자마자 더 짜증이 나서 발에 일하는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떤 개XX가 똥을 싸 놓았어요!” 어머니는 편지로 아직도 손님들과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웃는다고 하십니다. 귀찮음에 가득해서 하기 싫은게 표정에 보이는 애가 하기 싫다고 소리 치는게 아니라 저렇게 소리친다니 그 상황이 너무 웃겼다고 하셨습니다.

접견 오실 때도 그 때 했던 말 그대로 장난으로 해드립니다. 제가 20살때부터 연락을 무시했던 6년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시면서 한 쪽으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저는 이제 7개월 후에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두번 접견와주시고, 어머니는 못 오시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실테고 아랫지방에서 ○○까지 어머니 혼자서 오시는게 만만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재촉하지 않습니다. 항소 선고 전, 어머니께서 제가 몇 개월을 받던 쫓값을 다 치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6년동안 연락도 없이 돌아다녔던 딸을 기다리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꼭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볼 때마다 생각났던 옥수수도 같이 먹고 싶고, 바쁘신 어머니를 하루 휴가를 내게 해서 봄나들이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26살, 27살의 그리고 그 전의 봄나들이까지도 함께 하지 못했지만 28살의 저는 어머니와 함께 봄나들이를 할 수 있겠죠? 그 때는 옛날과는 달리 귀찮아하지 않고 제가 주도적으로 모든 집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처음 잡혀 왔을 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질문 ‘윤아, 많이 무서웠제?’ 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무섭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는 잘 생활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새길 평가글에 보면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라는 글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미결 때 대답하지 못했을 질문에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려고 여기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이런 딸을 버려주지 않고 다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나가서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나가서 더 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기 위해 저는 짓값을 치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작품평

글쓴이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하면서 틈틈이 발일도 하시는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대는 세탁 심부름을 정말 하기 싫었나 봅니다. 짜증을 폭발시킨 개똥에 얽힌 이야기가 지금은 즐거운 추억의 한 토막이 되어 어머니와 공유하고 있네요. 출소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온 식구 둘러앉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한바탕 웃음꽃을 피울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엄마의 고깃배



권정희

어느덧 내 나이 39세... 내 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네 가족이다. 행복했던 기억은 까마득하다. 나... 늘... 불행하였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어업을 하셨다. 새벽 3시가 되면 조업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는 늘 하시는 일이 있었다. 따르릉 시계를 7시에 맞춰 두시고 시계 밑에 용돈을 놓아두시고 새벽 바람을 맞으시며 조업을 나가신다. 남자의 몸으로도 힘든 뱃일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엄마는 아빠랑 고기를 잡으셨다. 난 그 어린 나이에도 학교를 마치면 바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힘들게 일을 하시고 지쳐 돌아오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겨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해서 늘 일찍 돌아왔다. 하지만 아빠는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에게 이유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엄마는 아빠의 장난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처럼 매를 그렇게 모질게 맞은 사람이 있을까 싶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돌아와서 본 광경이다. 엄마는 두들겨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였고, 집안 살림살이도 다 박살이 나서 난장판이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엄마가 조업을 마치고 오면 조금이나마 엄마의 일을 덜어주고 싶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연탄불부터 확인했다. 추운 바닷가에서 고생한 부모님이 집에 돌아와서도 차디찬 바닥의 냉기에 떨까봐 연탄불을 꺼트려 먹지 않는 것은 나에게도 무척 중요한 일과였다. 매일매일 냄비에 밥을 해서 이불 밑에 식지 말라고 덮어두고, 화장실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따뜻한 물 한바가지를 옆에 두고 손을 담가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손빨래를 하였다. 아빠는 저녁마다 거하게 취하셔서 엄마를 괴롭혔다. 이런 집안이

싫어서 오빠는 일찍 집을 나가서 속칭 깡패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나에게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언제나 이런 일이 일상이었다. 언제쯤이면 이 불행들이 멈출까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난 집안 일을 다하고 나서 집 밑에 있는 바닷가 등대에서 부모님을 기다렸다. 아빠는 조타실에서 운전을 하였고 엄마는 뱃등 위에 계셨다. 꽤 멀리서 보이는 거리였지만 우리 배가 확실히 보였었다. 엄마가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갑판 위에서 계신다는 것은 만선이라는 뜻이다. 그때마다 난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 엄마도 손을 흔들었고 아빠는 가끔 뱃고동을 울려줬다. 무사히 돌아온 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놓였다. 만선에 행복도 잠시 어느 순간 부터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졌다. 엄마가 매일매일 아빠한테 폭행을 당하고도 힘든 일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소주가 있어서 였다. 엄마는 매일매일 안주도 없이 소주를 몰래 숨겨두고 마셨다. 결국은 알콜중독자가 되었고 늘 고생만하다가 젊고 젊은 나이 45세에 눈을 감았다. 아빠를 용서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원망감만 들었던 아빠가 시간이 지나자 용서가 되었다. 내가 너무 어린 나머지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엄마는 늘 이미자의 노래 “여자의 일생”을 즐겨 부르셨다. 내가 지금 힘이 들 때면 그 노래를 자주 부르고 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행복했던 만선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항상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손을 흔들고 있다. 엄마의 빈자리가 나에게서 너무 컸다. 내 나이 스무 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벌써 20년이나 되었다. 지금 내 나이는 어느덧 40세를 바라본다. 불러보고 싶다 울엄마를 불러보고 싶다. 엄마엄마 불러도 이제는 대답이 없으시다. 엄마한테 잘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잘 못해줬던 일들만 기억난다. 그래도 울 엄마는 행복했을 것이다.

4월의 꽃망울들이 터져 나올 때면 엄마의 기일이다. 엄마는 어느 꽃들보다도 곱고 예뻐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울 엄마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봄나들이를 저어멀리 떠나셨다. 지금은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곳에 왔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나가서 엄마의 딸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래도 부르고 싶다.

엄마. 아빠! 그립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작품평

폭력가장 밑에서 불행한 성장기를 보냈군요. 아버지의 끔찍한 폭력을 강소주로 달래다 알코올중독자가 되어 45세 때 눈을 감은 어머니의 너무나도 불행한 일생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정희 님이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어머니의 불행이 대물림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대한 연민과 사랑이 막연하면 안 되고, 밝고 건강하게 사는 '실천'을 통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한파 속의 봄나들이



2020년 새해,, “세밑한파”라는 낯선 단어가 뉴스에서 보이더니, 거실에서도 문을 열고 입김을 뿜으면 하얗게 보일 정도의 추위가 며칠째 계속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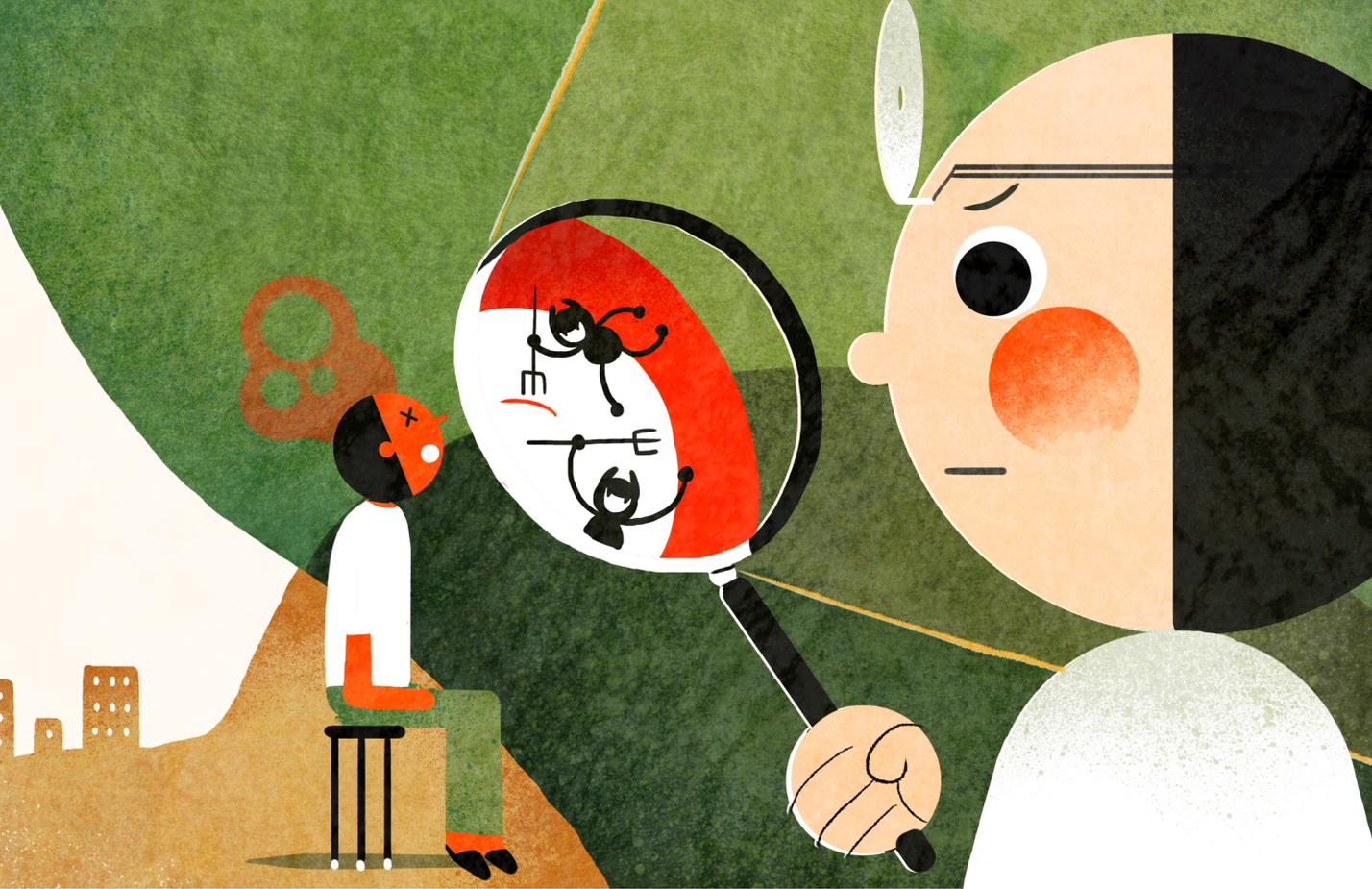
손이 시리다...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한지 어언 3년이 되어가지만, 몇 십 년을 따뜻한 타국에서 살아온 탓일까... 남들은 다들 여름 징역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하지만, 내겐 또 다시 맞이한 이 겨울이 버겨웠나 보다...

며칠전, 난 다른 전조증상도 없이, 갑자기 40도가 넘는 고열과 극심한 통증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아팠고, 이튿날, 세 번에 걸친 외부진료 끝에 A형 독감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

소내 첫 독감 환자라, 발각 뒤집어진 소로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 되어야 했었고, 따로 병동이 없는 관계로 수용동과 멀찌감치 떨어진 조사방이 나의 격리실로 배정 되었다.

고열과 오한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다가, 5일동안 독감 전용 항생제인 타미플루를 복용 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몸의 기력이 급속도로 쇠해지며, 육신이 약해지니 그동안 내 스스로 강인하게 지켜왔던 정신력 까지도 단숨에 무너져 버림이 느껴졌다...



독감이 시작되었던 그날 저녁, 갑작스레 목에 통증을 느껴, 난 뜨거운 매실차 한잔이 간절해졌다. 그것만 마시면 꼭, 나아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고심하다, 호출벨을 누르고는 야간 당직주임님께 “주임님 죄송한데요…. 제가, 목이 많이 아픈 것 같아서요…. 혹시, 사소에게 뜨거운 물 한잔, 얻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어 보았다.

그러나, 곧바로 들린 것은… “그건 절대 안되구여…. 본인이 아프면 약을 먹어요!”라는 그날밤 추위보다 더 차가운 대답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독감은 일반 감기처럼 서서히 아파오는 것이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 대답처럼, 난 약을 찾아 먹기도 전에, 고열이 발생되어, 의무실로 가게되고 그 뒤 병원행과 격리실로 순서가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뭘랄까…. 무어라 표현해야 할까…. 지난 3년의 수감 시간동안, 그 어떤 고난에도 다시 웃으며 오뎅이처럼 꾀꾀이 일어났던 나였었는데, 말로만 듣고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독감으로 한번에 쓰러지고 나니,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지난 이곳에서의 시간의 슬픔이 거센 파도처럼 강하게 몰아쳐 도무지 헤어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홀로 일주일 가량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속에 격리되어 있던 어느날, 한 주임님께서 조용히 방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작은 종이컵 하나를 내게 건네 주셨다.

잡아든 컵에 노오란 유자가, 물보다도 많이 담겨 있었고, 달큰한 향과 함께, 따뜻했다.

“69번. 아팠던 날 뜨거운 물 한잔을 못 마셔서 더 아프고 서러웠지... 그제 관규라서 그래. 나라도 잠시 고민 했을거야... 있잖아. 이젠, 우리 친정 엄마가 직접 담가주신 유자차인데, 대신 이거 마시고 그 서운했던 맘 풀고, 얼른 나아 해. 알았지?” 라고 하신 주임님의 말, 그리고 손에 쥔 컵의 따뜻함이 내 마음에 전해졌고 그 온기가 너무 뜨거운 때문이었을까.

눈까지 뜨거워져 버린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그 시간의 고로함을 뜨거운 눈물로 쏟아냈다.

“주..임..님... 너무... 길어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라고 맘속에 뽕뽕 싸매어 감추어 두었던 그말을 다 잊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끼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응... 그래... 그래...” 라며 나의 울음을 다독이시며.

사람의 영킨 마음을 오직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만 풀어 낼수 있다고 했던가.

매섭던 한파가 어느결에 끝나고, 담안 이곳에도 봄날처럼 포근한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내 마음도, 그 따뜻했던 유자차의 온기로 이제는 가득하다, 마치 봄빛 가득한 연녹색 들에 봄나들이를 나온 것처럼...



작품평

따뜻한 타국에서 몇 십 년을 보내다가 고국에서 수감생활을 3년 가까이 하시게 되었으니 겨울 마나 얼마나 추웠을까요. 게다가 A형 독감에 걸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야간 당직주임께 뜨거운 물 한 잔을 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심신이 좌절감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주임님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뽕뽕 얼어 있던 그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과정이 드라마틱 하게 전개됩니다. 독감을 이겨내듯 수감생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꽃눈 내리는 봄날



채규철

딸내미가 큰 소리로 하는 말, “아빠~아! 지금 눈이 와요~~.” 젊은 시절 일본 도쿄에서 근무할 때, 큰 딸이 열чу 여섯 살 남짓 무렵 어느 따사로운 봄날에 신주쿠 교엔 공원으로 봄나들이 소풍을 나가서 했던 말이, 이십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같이 생생하다. 공원 안에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몇 백년은 족히 묵은 높다란 아름답드리 벚나무 수십 그루 군락에서 휘~익하고 한바탕 바람이 불면, 마치 하늘에서 눈송이가 휘날리며 내려오는 것처럼, 빗꽃 이파리가 사방으로 흩날리며 나무주변을 새하얗게 수북이 뒤덮으며 순백의 장관을 연출한다.

“아빠, 눈사람 만들어 줘요. 빨리~~.”

“허헛~, 요 눈으론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 나중에 만들어 줄게.”

“아빠, 맨날 나중에 해준다고 하곤, 안 해줬잖아.”

지금 반백년이 다된 나이에, 수인(囚人)의 몸이 되어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삶의 고마움과 소중함이 내 마음 한 켠에서 왜 이리도 시리게 와 닿고 문득 눈물이 핑 도는지 모르겠다. 직장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적 달성이라는 당면과제에 매몰되어 어느 때부터 인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벌레 인생길을 터벅터벅 걸기 시작했다. 내 나름대로는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제대로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으로 한껏 불타오르던 시절이었다. 금융투자업계의 트레이더로서 장이 열리는 날은 전쟁을



방블케 하는 실전업무를 해내야 했고, 주말에는 자기계발을 위한 온갖 교육세미나에 참석하느라,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그리고 기타 집안 주요행사에 참석해 본 기억이 정말 두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물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내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는 애들도 대학생 성인이 됐고,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철옹성처럼 구축하고, 내가 끼어들 여지도 없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서먹서먹하게 걸도는 상황이 갈수록 굳어졌다.

이러는 엉거주춤한 가족관계의 와중에, 나는 과욕을 부린 불법적인 금융투자에 크게 연루되어 구속 수감됐고, 벌써 몇 년째 수용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정신없이 달려온 내 인생이 전부 끝장난 것처럼, 절망과 자포자기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댔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내 인생의 금자탑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처참한 심정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라는 법은 없는지, 아내가 해결사로 나서 나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주는 덕분에,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다.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에 힘입어, 나는 용기를 내어 딸과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전하는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이메일(전자우편)과 SNS메시지 사용만으로도 바쁜 문명사회인의 생활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닷없이 수 십년 전으로 뒷걸음칠 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손글씨로 편지를 쓴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내키지가 않았다. 무슨 새마을 운동 시절도 아니고...

하지만, 몇 번 계속해서 우리 애들에게 손 글씨 편지를 쓰다 보니, 내 손가락 끝을 통하여, 필기구의 힘을 빌려 내 진심을 솔직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한 기쁨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 이쁜 딸, 늠름한 아들과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는 서로가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고, 비록 어색하고 수줍어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조금씩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특히, 큰 딸은 나와 함께 했던 그 옛날의 봄나들이 소풍을 상기하면서, 풋풋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아빠와 함께 다시 되살려 보기로 굳게 약속을 했고, 나는 성실한 수용생활을 통해 앞으로 있을 가족만남의 날에 딸을 직접 대면하여 서로 손잡지를 끼고 굳은 의지를 밝히겠노라고 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절제하고 인화를 추구하는 바른 수용생활의 자세는 덤으로 따라왔다. 정말 가족 덕분에 살맛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실감했고, 새삼스럽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형용할 수 없다. 콧노래가 절로 난다.

“♫내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 이순간이라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싶다.

“너무 너무 사랑한다. 우리 아내! 우리 딸들! 그리고, 우리 아들!”



작품평

불법적인 금융투자자로 몇 년째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트레이더였으니 그 삶이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가는 동안 아이들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빠진 적이 많았나 봅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서먹서먹한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되었다고요. 수용생활이 전화위복이 된 경우가 아닌가요. 가족 간의 사랑을 손편지로 확인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남은 그곳 생활 활기차게 하시고 훗날에 할 가족여행을 미리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김효기

정말 그럴까? 사람은 역시 고쳐 쓸 수가 없는 걸까? 이 말은 정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무척이나 잔인하고 슬픈 말처럼 느껴진다! 이 말을 내뱉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왠지 타인에 대한 의심과 편견만이 가득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껏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곤 했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쓰는 나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사람이란 게 웬만 해선 착해지거나 나아지지 않고 나쁜 쪽으로만 더욱 악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런 선입견은 징역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더욱 확고해져 한층 더 나를 움아매었던 것 같다. 한동안 이 문제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나부터 바꿔보자! 라는게 그 첫걸음이었다.

나는 종교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만약 존재했더라도 이미 죽었다. 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멋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나는 성악설을 지지하며 신 같은 건 나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의지하고 기댈 무언가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 이라 여겼다. 그런 반항적인 사고 때문이었을까. 핑계처럼 보이고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청소년기의 시절을 온갖 비행과 말썽과 일탈로 가득했었다. 그리고 지금껏 나이를 먹어 오면서까지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보였다. 사실 처음 1년짜리 천주교교리를 시작한 것도 열심히 교리를 공부해서 오히려 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해보이겠다는 굳은 결심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었다. 난 그렇게 1년짜리 지루하고 따분한 교리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처음엔 잠만 잤다. 하품이 나오고 쏟아지는 졸음을 견딜 수 없었다. 교리 선생님이 눈치를 주실

때마다 괜히 왔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1분이 1시간 같았고 1시간이 1주일 같았다. 갈 때마다 매일 “딱 이번 한번만 가고 그만두자!”, “이정도면 됐어. 포기하자.”라는 말뿐이었다. 그렇게 봄이 가고 가을이 갔다. 2주에 한번 교리공부에 나가면서도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는 나날이었다. 오기가 생겼던 것일까? 혹시나 이번 계기로 인해 언제나 포기하고 도망치기만 했던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하고 기대했던 걸까? 스스로도 납득이 안가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날들이 지나가고, 벌써 1년째가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교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2주 뒤 벌써 1년 과정이 끝나네요. 교리가 끝나면 곧바로 서례를 받을 겁니다. 축하합니다.” 해맑게 미소 짓던 선생님이 얼굴을 잇을 수가 없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나는 반문했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빙그레 웃고 있었고 나는 그 후 2주 뒤 기어이 세례를 받고야 말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영망진창인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그런데 아니었다.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바뀌었다. 지금도 알 수가 없다. 허나 주변의 형들이나 아는 분들이 내가 많이 달라졌단다. 억지로라도 기도문을 외우고 성호경을 긋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던 걸까? 주변사람들이 어쩐지 요즘 내가 차분해지고 신중해졌다고 한다. 나보고 인상이 폼났다고, 사람이 좋아졌다고 한다. 변화란 그런 걸까. 자신이 변하는 걸 자신도 모르면서 어느새 조금씩 나아지고 성장해있는 그런 것일까. 요즘에서야 느낀다.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다르게 봐준다면 분명 나는 달라진 것이고 결국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던, 반론하고자 했던 질문에 이제야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다고 말이다.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다고? 내 대답은 No다!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달라질 거라 믿지 않았던 그 누군가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희망적인 바람을 가져본다.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말을 세상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는 미래를 소망해본다. 지난 1년간의 인내와 고통은 이 달콤하고도 짜릿한 결실을 위한 시간들이었다. 물론 내가 보기엔 난 아직도 영망진창이지만, 영망진창인 채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응원 해주신 신부님, 교리 선생님, 주변분들에게…….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작품평

인간의 삶은 1회적인데 우리는 무병장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가 가면 하루가 준 것이겠지요. 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나태하고 방탕하게 삽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하고 남이 노력해 이룩한 것을 교묘하게 빼앗기도 합니다. 천주교 교리를 공부해 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부해 보이겠다는 굳은 결심 하에 나간 교리반 공부. 1년 만에 세례를 받는 과정은 코미디 같지만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텐, 나인, 에잇……. 에라잇, 멋지게 살아봅시다.

봄나들이

홍정표

나는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다. 부모님께서 귀농을 하면서 열 살도 안 된 나이에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농사일을 하시는 두 분은 이웃 분들에게 농사법을 물어가며 들은 대로 따라하는 초보 농사꾼이었다. 서투른 농사일에 부모님의 시행착오는 나에게도 마친 일도 다시 하게끔 만들곤 하였고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한 숨이 나왔지만 부모님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다.

내가 중학생이 될 무렵 부모님들은 초보 농사꾼을 벗어나 나름 자신들의 생각으로 농작물을 다룰 줄 알게 되었고 두 번 일을 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한 해 농사는 봄철 씨앗을 틔우는 것부터 시작 한다.

따뜻한 아랫목에 고운 채에 거른 흙을 넣은 판에 소독한 씨앗을 뿌리고 천으로 덮으면 된다. 상태를 보가며 가끔씩 물을 주면 며칠 후 하얀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싹이 안 나면 한해



농사는 늦어지거나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시기다. 천 밑에서 자라는 씨앗의 상태를 보고 싶어도 엄마는 귀중한 것을 감춰 놓으신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씨앗이 부끄러워 싹을 피우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씨앗의 상태를 보는 것은 엄마가 주로 담당하였고 아버지는 엄마가 봐 달라고 할 때만 보곤 하셨다.

씨앗이 싹을 피우면 곱게 채질을 한 고운 흙에 거름을 섞어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하우스 안으로 옮겨 심는다. 지금은 하우스에서 난방시설을 갖추어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고 바로 하우스에서 모든 작업을 마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난방시설이 없었다. 그때부터는 하우스 안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버리는 이불 등으로 보온 조치를 하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적당히 주면 발이나 눈에 파종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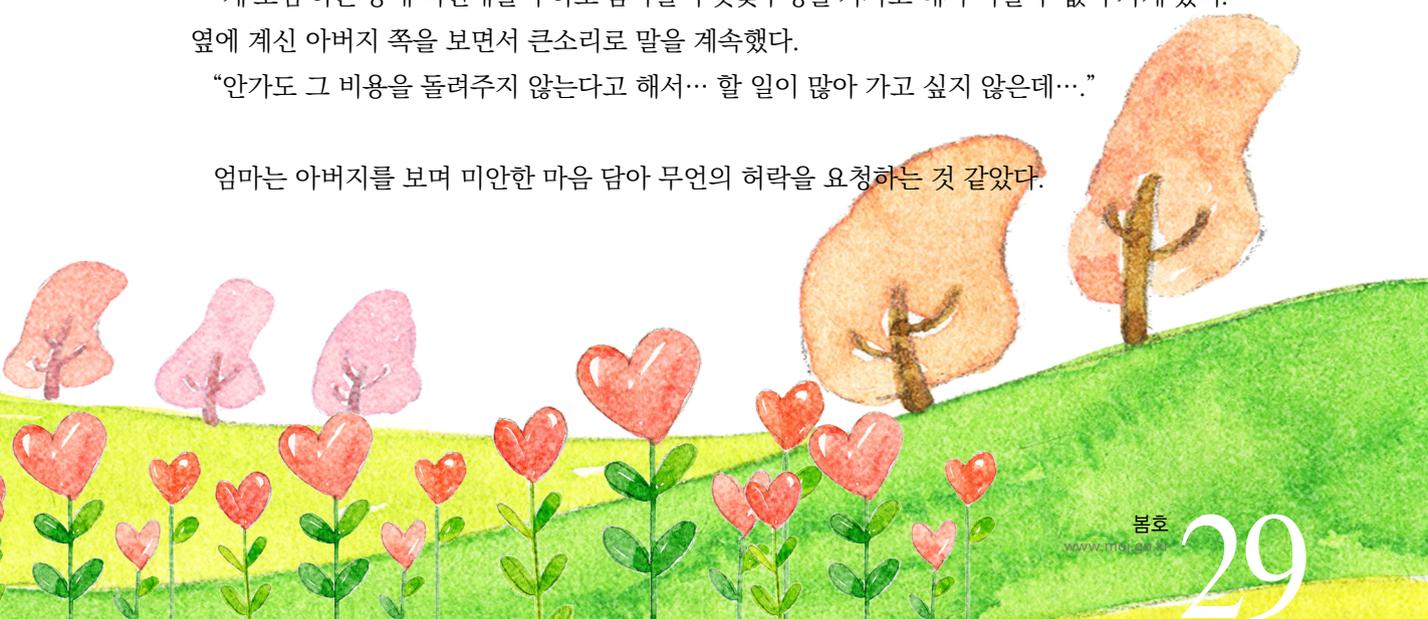
파종을 하기 전까지 밭을 갈고 이랑을 만들고 논을 갈아 놓는다. 이 시기가 농촌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이다. 이 중요한 시기의 어느 날 평소 엄마의 행동과 표정이 달랐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찾아 마무리를 하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국도 넉넉하게 끓이고 있었다. “반찬은 냉장고에서 꺼내어 먹을 만큼만 덜고 바로 냉장고에 넣고, 국은 먹을 때 마다 꼭 끓여서 먹어.”, “밥은 쌀을 씻은 후 손바닥으로 쌀을 누른 상태에서 물은 손등의 중간부위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 부어야 해.” 어디 멀리 가는 사람처럼 말했고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엄마가 당부하는 말을 기억하고자 노력했다.

“엄마 어디가?”

“계 모임 하는 동네 여편네들이 하도 봄나들이 벚꽃구경을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 옆에 계신 아버지 쪽을 보면서 큰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안가도 그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할 일이 많아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는 아버지를 보며 미안한 마음 담아 무언의 허락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계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한참을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잖아.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갔다와.” 하며 허락을 하셨다.



엄마는 직업 군인 이셨던 아버지에게 열아홉 나이에 시집을 와서 아버지의 잦은 부대이동을 따라 많은 이사를 다니면서 한 곳에서 정착을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아버지의 말 한 마디에 다음날 이사를 가야하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다. 한번은 처가에 일이 생겨 급히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아버지가 군 훈련으로 같이 갈 수 없었고 혼자 처가에 갔다. 일주일 정도 일을 본 후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부대이동으로 급히 이사를 하였고 이웃집에서 이사 가는 주소를 받아 집을 찾아 가셨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내가 어릴적 엄마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일처리와 무시하는 언행을 할 때면 자식들만 없었다면 벌써 집을 나갔을 텐데 너희들을 고아로 만들기 싫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면서 녀드리를 하곤 하셨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으로 버티고 계셨었다.

이런 엄마가 결혼 후 처음으로 가족을 두고 혼자 나들이 여행을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엄마의 표정은 소풍을 가기 전날의 어린아이 같았고,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던 나도 같이 즐거운 마음이 되어버렸다.

여행 당일 엄마는 나에게 당부했던 것을 다시 복습 시켰고 1박2일 나들이를 떠났다. 방과 후에 집에 오니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생소한 느낌과 쓸쓸한 적막감마저 들었다. 저녁밥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었고 아버지도 칭찬해 주셨다. 아버지와 둘이 어색한 분위기로 저녁을 먹었다. 다음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왔다. 엄마의 인기척에 나는 짐을 들어 주면서 엄마의 표정을 살폈다. 엄마는 즐거웠다는 말보다는 고생하고 힘들었다는 말만 하였다. 그러면서 집안의 이쪽저쪽을 다니면서 나에게 당부했던 것들은 한 개 한 개 확인하듯 물었고, 정리해 놓은 것들을 다시 꺼내 다른 용기에 옮겨 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내가 하루만 없어도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없으면 밥이나 해 먹겠어!” 하며 혼잣말을 하듯이 나를 꾸짖으셨다.

나는 억울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엄마의 당부내용을 정확히 완수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다. 엄마의 이런 잔소리는 다음날 농사일을 하면서도 계속 되었다. 아버지는 급기야 언성을 높였고 다시는 나들이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서야 엄마의 잔소리는 멈추었다. 그때부터 엄마가 나들이 간다고 하면 돌아온 후의 엄마의 잔소리가 두려웠고 엄마의 나들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아버지와 같이 나들이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우스웠던 행동이나 뒷담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갔고 웃는 일도 많아졌다.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몰라보게 부드러워졌고 농사일을 할 때도 서로의 의견 차이로 옥신각신 하시던 것도 없어지고 서로 존중하며 칭찬을 하였다.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분 사이의 끈끈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도 그 속에 일부분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엄마의 날 이후의 잔소리는 없어졌고 나의 걱정스러움도 사라졌다.

본심과 다르게 표현방법이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나들이를 다녀오신 후 나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 것은 아버지 혼자 농사일을 하게 한 미안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 들으라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나도 이해를 하면서 두 분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아버지와 이구동성으로 자식들 다 필요 없다며 아버지 먼저 챙기신다.

벚꽃이 필 때면 처음 나들이 준비 하시던 동심의 엄마 표정이 생각나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핀다.



작품평

농사짓기에 여념이 없던 부모님에 대한 추억담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결혼 후 처음으로 계원들과 함께 벚꽃경을 가던 날의 정경은 소설을 읽고 있는 양 실감이 납니다. 부모님이 지금 다 계시다면 출소 후 효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그곳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봄나들이



한만기

사람은 두려운 옷을 벗고, 겨우내 얼었던 대지는 생명으로 용솟음치는 계절이 봄이다.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직접 목도하는 감동의 계절, 들에서 산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교향곡을 듣는 계절이 봄이다. 생명 탄생의 경이, 봄의 합주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지난 겨울 모진 추위를 이겨 내지 못하고 겨울의 추억에서 끝난 이들에겐 간절하게 소망했던 봄이었을 것이고 남을 자들에게 봄은 탄성과 함께 오는 희망의 시작인 계절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고자 '그냥' 나서는 것, 이유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나서는 것이 '나들이', '봄 나들이'다.

나들이란 말은 나갔다 + 들어오다의 합성어다.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닌 다시 들어옴을 말한다. 나가는 것도 무슨 목적이나 정해진 계획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냥 가볍게 설렁설렁 둘러보다 들어온다는 뜻이다.

우리말의 '행차', '소풍', '탐방', '여행'이나 영어의 'picnic', 'getaway', 'excursion', 'outing'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뉘앙스를 지닌 말이다.

나들이는 번거로움과 목적을 동반하지 않으니 자유로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말 긍정만 있고 부정은 없는 말이기도 하다.

‘봄나들이’는 생명의 약동을 노래하는 봄에 경쾌한 춤을 결합하였으니 가히 봄의 뮤지컬, 봄의 오페라라 할 만하다. 혹독한 겨울을 인내와 수고로 이겨 낼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선물이다. 우리말 ‘봄’의 어원이나 한자 ‘춘(春)’이나 영어의 ‘spring’이나 온기를 바탕으로 바깥으로 나옴을 뜻한다. 주어진 온기나 밑거름 없이 새 생명의 돌음, 생명 탄생의 경이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봄은 무에서 유를 찾는 기적의 계절이 아니다. 수만 잎을 피워 낼 봄의 교향악은 지난 시절의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만 탄생할 수 있다. 봄은 오랜 세월 우리에게 오고 수없이 갔지만 그 의미를 느끼고 경이로움에 감격해 본 적 있는가?

그냥 세월은 오고 그냥 가는 봄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봄의 경이도 느끼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시절 인내와 수고도 없이 남들이 가니 나도 가는 봄나들이는 아니었을까?

순간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연못가의 봄 풀이 채 꿈도 깨기 전에 섬돌 앞 오동나무잎이 가을을 알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워야 되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세워야 하고 봄에 씨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없고 젊어 배우지 않으면 늙어 아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온 봄의 의미를 잘 새긴다면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멋진 봄 나들이를 위해서

첫째, 경자유전원칙의 법칙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는 사람에게 가을걷이의 기쁨이 있고, 겨울의 따뜻함이 있고, 봄나들이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변화는 필수다.

둘째, 봄에 깎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지 마라.

어리석게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평생 차일피일 미루는 일로 업을 삼지 않았는가? 안일한 생각에 빠져 대충대충 넘어가기를 밥 먹듯이 하지 않았나? 봄에 깎 병아리는 꼭 봄부터 세어서 자신의 부주위와 시행착오를 보안해야겠다. 죽어 없어진 병아리를 아직도 안고 살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세어보자.

셋째, 봄 추위와 늪은이 건강이다.

당장은 대단해 보이는 봄 추위도 노인의 건강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지난 시절의 영화와 낡은 사고를 무기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버려라. 껍질은 벗지 못하면 영원히 애벌레, 번데기로 남을 뿐이다. 날개를 펴고 더 넓은 세상, 창공을 날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단단한 껍질부터 벗겨야 한다. 오늘도 입에 거품을 물고 '나는 애벌레다. 나는 번데기다'를 외치고 있지 않는가?

올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한발을 소홀히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연말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봄부터 부지런히 목표의 씨앗을 심는다면 가을엔 열매 그 이상의 보상을 얻을 것이다.

자연계의 사계절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뿐이다.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라. 오늘 온 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한 봄 나들이를 위한 자기변화, 수고와 인내의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시종일관 삶의 언행일치를 추구해라.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는 속담처럼 '급할 땐 부처님 다리 껴안는다'라는 말처럼 다급할 때는 온갖 노력을 다하였지만 지금은 자포자기한 삶. 무사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의 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 찰나의 봄, 찰나의 시간을 아쉬워 말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봄 나들이를 꿈꾸는 모두에게 영광의 보상이 주어지길 기원한다.

작품평

학식이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도 철학을 전공한 사람 이상으로 깊고 풍부합니다. 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대단히 뛰어나 읽는 내내 경탄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봄나들이



사형수와 보낸 5년 사이 사십대를 맞았다. 안팎으로 시간을 막고 서 있는 교도소 담장 안, 추위와 더위만이 피부에 와 닿는 곳에서 사형수와 작은 화단은 사계절이 드나드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다.

민들레·나팔꽃·명아주·쇠비름·냉이 꽃이며 엉겅퀴를 많이 닳은 팽이밥과 하도 작아서 바닥에 바짝 엎드려야 고 귀여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꽃 주름잎 등의 야생초가 감나무·뽕나무·오렌지 나무 사이사이에서 해마다 피어났다.

시멘트 바닥이 떨어져 나가면서 드러난 한 평이 채 안 되는 흙바닥을, 사형수는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다시 씨를 받고) 물을 주고 이파리 하나하나 달라붙은 진드기도 놓치지 않는 정성으로 메웠다.

먹고 버린 과일 심지어 방금 떨어진 새 통을 뒤져서 얻은 씨앗조차 소중히 받아드는 그 손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다가도 막상 짝을 틔우고 마는 광경에 나는 도리어 부끄러운 심정이 되었다.

막 서른 살이 되던 무렵 15년을 선고 받았다. 죄스런 자괴감에 내몰리다 생을 버리는 쪽으로의 도피를 작정하고 있을 때, 웬일인지 그런 나를 방해라도 하듯 종종 상담실로 불러가는 직원이

나타났다.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의 나이 지긋한 직원은 따뜻한 차를 건네주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때마다 묻지도 않은 얘기를 잔뜩 풀어 놓곤 했다.

“처음 전근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지 아마? 이래봬도 한 때는 꼴통 문제수들도 내 앞에서 슬슬 기였거든. 잘 안 믿기지?” 그러거나 말거나하는 반응도 무시한 채 대충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는, 부임 초기 어른 키만 하게 자란 잡초 때문에 건물이 안보일 정도로 형편없이 방치된 외딴 곳의 환경 개선 작업을 주도하면서 벌어진 소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직원은 그 날 제초작업에 동원한 수용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그런 식으로 소문낼 줄 몰랐단다.

“내 생각이 짧아서 거기까지 예상을 못한 거야. 그동안 방치된데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사형집행이 곧 있을 거란 소문이 소 내 전체에 퍼지면서 난리가 났어.”

결국 그 일로 인해 소장실까지 불러갔고, 무엇보다 소문의 피해 당사자인 사형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아주 어렵게 사과와 뒷수습을 해야 했는데, 알고 보니 마지막 날 입고 갈 속옷과 양말을 수의 마냥 준비한 사형수가 있는가하면 곧 영영 헤어질 가족에게 유서를 남겨 둔 사형수도 있더라는 것이다.

이후 직원의 인식 또한 크게 바뀌어서 수형자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는 일화였다. 아마 그 독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었나 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후회가 약이다.’ 이 말은 내 경험이 지어낸 말이다. ○○로 곧 이송된 나는 얼마 안 지나서 자살을 시도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어디론가 멀리 가려는 나를 다행히 빨리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한 직원이 있어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다. 감사한 일이다. 백 번, 천 번을 말해도.

이 겨울을 잘 보내면 사형수의 화단에 다시 봄이 찾아오겠지, 죽다 살아난 후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앓은뱅이 책상에서 보냈다.

한글 맞춤법부터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 독학사와 또 성격 책을, 때론 거기서 우습게도 시나 소설 같은 걸 쓰기도 하면서.



새 똥에서 찾아 낸 더러운 씨앗을 화단으로 가져가는 사형수에게 그게 무슨 종자인지는 알고나 심느냐고 물었었다.

“여기서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지. 모르니까 궁금한 것이고. 기다리다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

비슷한 질문과 또 답을 내 스스로 앓은뱅이 책상에서 늘 찾아왔기 때문일까, 사형수의 대답이 우문현답처럼 또 위로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암만 봐도 책상 위에서 내가 하는 일은 도무지 티가 나지 않으니 사형수의 화단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싹수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새 똥에서 건진 씨앗을 가리켜 “원래 걸이 딱딱한 씨앗이 싹을 늦게 내는 법이야. 좀 더 기다려봐.”라던 사형수 ‘님’형님을 믿고 나도 기다려봐야겠다.

예년보다 낮다고들 하지만 담 안의 겨울은 여전히 매섭고 길다. 그러나 이 겨울이 깊어 갈수록 봄에 가깝다는 것 역시 이치다. ‘봄나들이’, 내게도 봄이 올 것이고, 그렇다면 사형수의 화단을 옆에서 더불어 즐기면서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작품평

막 서른 살이 될 무렵에 15년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30대 전부와 40대 절반은 인생의 황금기 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형수가 사는 방 앞에 작은 화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곳에 무성히 자란 잡초를 베는 과정에서 일어난 지난날의 소동은 영화 몇 장면을 보는 느낌을 줍니다. 목숨이 그만큼 중한 것이겠지요. 걸이 딱딱한 씨앗이 싹을 늦게 내는 법이라는 사형수의 말이 묵직한 무게로 다가 옵니다. 출소 후에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꾸려 가시기를.



봄나들이

정삼주

철창 밖 맑은 하늘 빛을 따라 창공을 보면 문득 어린시절 초등학교 봄 소풍이 내 기억에 문을 열고 추억이 깨어나 햇살따라 확연히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마음 설레고 즐거운 초등학교 5학년때 봄 소풍이 생각납니다.

내가 태어난 오지 농촌마을에서는 최고의 봄나들이였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시느라 허리띠 졸라 메시며 아침 동이 뜨기 무섭게 일을 나가 달 그림자를 밟으며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을 달빛을 받으며 골목길 담벽에 기대어 기다리다 지칠 무렵 부모님이 희미한 달빛을 밟으며 함께 일하신 동네분들과 작별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밤에 무서움과 기다림의 지루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기다림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 잘 참고 기다린 내 자신이 대견해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들떠 엄마, 아버지(아버지)를 외치며 뛰어가 지게를 지신 아버지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오시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오는 길에 마음이 들떠 큰 소리로 학교에서 봄 소풍 간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계란 말이에 하얀 쌀밥으로 김밥을 만들어 누나 도시락, 내 도시락과 어깨에 메는 물통을 준비해 주셨다. 쌀 밥 먹기가 힘든 시절에 어린 나에게는 봄 소풍이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봄나들이였습니다.

봄 소풍가는 날 아침 어머니는 알뜰이 모으신 잔돈을 손에 쥐어 주며 음료수, 사탕을 사먹으라는 말과 돈 잃어 버릴까봐 바로 학교 앞 가게에서 사먹으라는 당부 말씀을 남기고 바삐 일을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앞 가게에는 벌써 부모님들로부터 소풍용돈을 받아서 소풍가면서 먹을 과자, 사탕, 음료수 등을 사느라 시끌시끌 병글병글 했습니다.

봄 소풍은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1학년부터 3학년은 서당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가고 4학년부터 6학년은 10리 거리에 있는 내가 살던 지역에 꽤 유명한 절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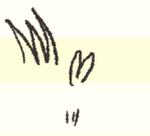
산 중 도로가에 있는 절에는 우리들을 무섭게 하는 큰 눈 사천왕, 대웅전, 탑 등이 있고 탑에는 지금도 총탄 자국들이 그 날에 참상을 말해주는 유서깊은 절입니다. 절 터가 넓어서 각 학년별로 모여서 꿀맛같은 점심시간에 김밥과 누나를 줄라 받아 놓은 사이다를 마시며 바라보는 앞 산에 핀 진달래꽃, 절마당에는 동백꽃, 절 담벽길에는 샛노란 개나리 꽃들이 배부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니 더 한층 화사하게 꽃 색을 빛내고 꽃 잎 사이 사이로 따뜻한 햇빛을 따라 스물 스물 피어오른 아지랑이가 꽃 앞에 닿을 때마다 꽃들도 힘이나 꽃빛을 발산하여 바라보는 내 눈이 부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각 반별로 보물찾기가 시작되어 종이보물표를 찾으려고 풀 밭에 돌을 뒤집고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 보물종이표를 뽑아서 담임선생님께 가지고 가면 선생님께서는 보물 종이표에 적혀 있는 학용품 이름대로 연필 한 다스를 보물로 주셨습니다. 보물 연필 한 다스 받아서 신이나 뛰어 다니며 친구, 누나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던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그때에는 연필 한 다스에 그리도 기쁘고 신이 났던지 노래자랑은 관심도 없고 집에 어서 가서 부모님께 자랑하고픈 마음에 들떠서 봄나들이 소풍이 끝나고 집에 오는 10리길에 다리가 아플 법도한데 쉬지도 않고 신이나서 집에 왔지만 막상 집에 오니 날이 저물지 않아서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아 부모님께 자랑을 못한 것이 어린시절 나에게서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해 했던지 아침 일찍 농사일나가 어두워 밤이 되면 집에 오시는 부모님을 원망할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봄나들이 소풍의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농사일로 늦으시는 부모님을 누나와 함께 기다리면 누나는 먹지않고 아껴둔 사탕을 꺼내주었고 나는 사탕의 달달한 맛에 취해 누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아쉬움이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있는 누님께 철없는 남동생을 위해 주신 누님께 추억속으로나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철창 넘어 담 밖에 약으로 연명하시는 홀로되신 노모님과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나처럼 아버지를 찾아 집에 와도 아빠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허탈해 하고 속상한 마음을 남겨주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이제 현실을 봅니다.

다시 철창 넘어로 푸른 하늘을 보며 세 자녀의 아버지로써 부끄럽지 않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보람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직업훈련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훈에 가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벌써 성실히 인성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 이 분야에 취업을 하여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눈이 대지를 덮은 하얀 발자국을 남기며 새길을 걸을 것입니다. 세 자녀에게 이제까지 다 못한 사랑과 아버지의 자리를 비우지 않은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따뜻한 사랑에 가족애를 일구며 가끔씩 우리 가족 모두 신나고 즐거운 봄나들이 소풍을 떠나면서 가족끼리 보물찾기를 하여 필요한 선물을 주면서 기쁜 웃음, 행복한 웃음을 다시 꼭 찾아준다는 다짐과 행복한 기대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봅니다.



작품평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봄 소풍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니 기억력이 정말 좋습니다. 세 자녀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딸 공부를 하기 위해 인성교육부터 이수하셨다고요.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으니만큼 틀림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날이 꼭 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나눔 쓰기 공모전에 참여하고

얼마 전 우리 소에서는 전국 교도소에서는 처음으로 감사나눔 쓰기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총 1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소장님 표창장 그리고 가족만남이라는 동기부여를 통해 막대한 기대감을 안고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는 매일 5감사쓰기 2개월, 100감사쓰기 10회를 제출하는 것으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제출된 원고의 분량에 따라 각각 차등하여 점수가 부여되고 그 내용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서 그에 따른 시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9월 말부터 매일 5감사 쓰기부터 시작해서 틈틈이 100감사 쓰기도 준비하며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쓰기가 힘도 들었지만 조금은 억지 춘향처럼 어떻게든 끝까지 해보자며 열성을 다하다 보니 매일 5감사 쓰기와 100감사 쓰기의 주어진 분량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으로 제게는 우수상이라는 소장님 표창과 1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아쉽게 가족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참여한 동료들이 가족들과 만나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감사나눔으로 위로하고 독려하면서 시상식의 참여한 동료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는 모습은 제 가슴 한편에 그동안 써내려온 가족들의 대한 감사와 더불어 몽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현재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너 참 잘했다.' 하고 상을 받고 박수와 격려를 받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넓은 강당에서 외부에서 초빙된 사회자의 진행으로 여러 저명한 분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 앞에 서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저에게 오히려 재판정에 설 때 보다 더 낮이 부끄러운 떨림과 새로운 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동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저와 함께 참여한 동료들의 감사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은 그동안 담 안에서건 밖에서건 느껴 본 적 없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고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감사 나눔 시상식 행사에서의 느낀 감동도 컸지만 저는 2달여간 감사 나눔을 쓰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화난다. 짜증난다. 힘들다’ 라는 개인적인 감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짜증나고 화나는 가운데도 매일 감사할 일들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지나치고 있는 좋은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에 짜증나고 힘든 일이 하나라면 감사할 일들은 다섯 가지가 넘는데 왜 나는 힘들다고 투덜거리며 살았나 하는 그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수용생활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내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 당연시 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또 힘든 가운데도 견딜 힘이 생기고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평범한 기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감사쓰기를 하면서 그동안 원망했던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서운하고 실망했던 일들보다 그동안 가족들이 내게 해준 고마운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공기처럼 숨쉬듯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일들도 마음을 달리 보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작 몇 안되는 서운한 일들 때문에 100가지도 훨씬 넘는 감사한 일들을 잊고 가족들을 원망했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얽매어 살던 나는 잊고 오늘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내일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2달여의 짧은 시간동안 경험하고 느낀 감사쓰기가 제 40여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쓰게 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자책과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겸허한 수용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렇게 저에게 감사쓰기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감사나눔 신문과 ○○교도소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품평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가까이에 늘 있는 것을 우리는 욕심과 질투로 잃곤 합니다. 소중한 존재들에 대한 감사함을 잃고 나서 후회로 알기보다 지금 살펴보는 것. 감사할 일이 하루에 5가지씩이나 있다는 것. 저도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써보려합니다.

직업훈련 교육을 마치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훈련을 훈련받고 이수한 천재호라고 합니다.

20대 청춘을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면서 기술하나 배운적 없었던 저 자신이 어느 순간 너무 비참했고 이번 계기에 또 허송세월 보내면 정말 끝일 거라 생각하고 직업훈련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도 난 정말 손재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도 계속 노력한 결과 확실히 실력이 늘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하셨습니다.

특히 3D직종은 저에게 더욱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다보니깐 정말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훈련을 받은 직종은 모두 단기 실무 위주로 해서 자격증을 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6개월 중식 요리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계기에 저의 가능성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 아무것도 배운 적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건 이것저것 배워서 저의 적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중식요리에서 3월 달에 있을 필기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50점대 시작해서 지금은 70점대까지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 정말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첫 직업훈련 선생님이었던 미장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나가서 전 이번 계기로 더 많은 것을 배워보고 싶고 또 좋은 곳에 취직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못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저 같은 사람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있다면 교도소에서 돈을 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배우고 나가는 것이 최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가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작품평

성공한 사람의 결과는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없인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딘 걸음이어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니 무엇보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먼저 칭찬해줄 수 있는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드려봅니다.

새로운 길

이정환



어의 없는 잘못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 있던 후 △△으로 넘어왔다. 자유롭게 달리다가 돌에 그만 발바닥을 찍고 말았다. 무척 아팠지만 상처도 없고 해서 금방 나오리라 생각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처음에는 소방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맞추어 사느라 몰랐는데 발이 조금씩 아파왔다. 진통제를 먹기 시작했다. 고무신을 신고 달린게 발에 무리가 왔나보다. 그래도 운동한다고 짚뚝 거리며 달렸다. 방을 옮기고 다른 운동장으로 갔다. 거기에는 한쪽이 움푹 꺼져있고 달리다가 빠질 위험이 있었다.

잡초와 돌, 쓰레기를 주어다가 메우기 시작했다. 한동안 운동이 아닌 웅덩이 메우는게 운동 시간이었다. 연장도 없이 손으로 돌과 흙과 잡초를 나르다 보니 처음에는 이걸 언제 끝내나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다 남는게 시간이라고 어짜피 발이 아파서 제대로 달리는 게 힘드니 좋은 일하자고 마음을 고쳤다. 이것도 습관이 되어 계속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메우고 나서 발도 다 나은 줄 알았다. 다시 달리기를 했더니 또다시 발바닥부터 통증이 올라왔다. 결국 기브스를 하게 되었다.

비가 내린 후 나가보니 빗물로 모래와 흙이 흘러 들어가 웅덩이가 말끔하게 메워져 있었다.



보기가 좋았다. 재판이 끝나고 처음 돌이에 찍혀 다쳤던 동으로 전방했다. 운동 시간에 기브스 한 채로 돌을 주어서 돌담 끝에 버렸다.

다행히 플라스틱 통을 쓰게 해 주어서 몇통씩 버릴 수 있었다. 땀이 비오듯 흘렀다. 며칠동안 치우고 또 치우니 운동장이 말끔해 졌다. 계장님도 주임님도 좋아하시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내 발에 대한 소심한 복수(?) 도 이루어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실수와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교도소나 병원으로 들어와 고생과 고통을 겪는다. 내 발을 다치게 한 돌을 원망한다면 돌을 치워야 하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사건이 괴롭다면 사건을 뛰어 넘어야 한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 길은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습관이 되고 좋은 길을 만들어 가다보면 내 인생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리라 믿는다.

우리 모두 새로운 길, 희망과 행복이 있는 빛나는 길로 걸어 갔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우며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 가자. 기회가 오면 물러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저와 같이 없는 자에게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금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내가 먼저 나를 아껴줄 때 세상이 나를 아껴준다.

작품평

나를 위한 일이 곧 타인을 위한 일이 되고 타인을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문맥은 좀 거칠지만 글의 힘은 진정성에 있는 것이어서 읽는 이에게 더 잘 다가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아껴줄 때 세상이 나를 아껴준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유정식

처음 성교육 프로그램을 6개월이나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매년 똑같은 교육을 그것도 6개월이란 시간동안 받아야 한다가에 '무엇으로 6개월이란 시간을 때워야 하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에 도착해 처음으로 했던 것은 매년 똑같은 유형의 몇 백 문제나 되는 설문지를 풀면서 또 한 번 실망하게 되고, 소망반이란 그룹에 배정받아 들어간 교실에는 낮선 이들의 눈초리와 낮선 선생님들의 목소리, 어딘가 모르게 가시가 돋친 듯 한 말투에 "이런 교육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이런 교육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라는 교육생들의 질문이 마치 제 자신이 저에게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선생님들의 다가오는 방식부터가 이제까지 제가 받았던 프로그램들과는 달랐습니다. 옆집 형처럼 다가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던 박프로 선생님, 자기 아들의 책과 물건들까지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어주시는 푸른 하늘 선생님, 선생님들이 사비를 모아서 상품을 만들고 미니 체육대회와 퀴즈대회, 명절에는 옷놀이대회 등으로 교육생들의 스트레스도 풀어주시고 무수히 많은 신청곡을 개인시간에 다운받아 쉬는 시간마다 틀어주시는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차츰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교육에 참여하다보니 난생 처음으로 자서전이란 집필에도 도전을 해보았고,

저의 올바르지 못했던 성 인식이나 어릴 적 잘못 배웠던 성에 대하여 다시 배우게 되었으며, 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어릴 적 아픔이나 슬픔, 상처들을 꺼내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저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피해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저의 미안함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아 써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 배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은 분노가 증가되어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저의 가슴에도 커다란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육을 받으며 제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점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제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 출소 후에는 최소한 50%의 승률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이곳에서 남은 앞으로의 시간들을 스마트하게 계획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센터장님이 항상 교육생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푸른 하늘 선생님, 박프로 선생님, 청명 선생님, 무지개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 결코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작품평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도 소중합니다. 인간의 사자는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넘어졌을 때 누군가 손잡아 일으켜 주는 것,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사람은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소감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이상규

2019년 12월 17일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아버니의 유골을 선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옆에 묻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는 지금 친부를 위한 마지막 효도를 하게 하라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제가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어린 시절 양촌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4남매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시편과 잠언을 5소절씩 읽었다.

그땐 주일학교에 하루라도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하나님이 무서워, 아니 지옥 가기 싫어서 꼬박꼬박 주일학교에 참석을 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졸린 눈을 부벼가며 밤을 세워 성탄 찬송가를 새벽녘 집안 곳곳에 불러 제졌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이 필자의 놀이터였고 예배보는 장소가 필자의 공부방이었다. 그래서인지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자의 유일한 말동무 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필자 에겐 고향 마을 양촌(陽村)이 필자의 에텐동산이었다.

동화 속 천국처럼 생활하던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온 집안을 쭉대밭으로 만들며 필자의 에텐동산은 무너

지기 시작하였고 필자의 집은 할머니만 남겨둔 채 단칸방에서 여섯 식구가 기거하게 되었다. 내성적이고 썩매이었던 필자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녔으나 필자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고 필자는 외계인으로 치부되어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밤이면 잔뜩 술에 취한 아버지를 피해 밤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다 시험때면 놀이터 가로등 밑에서 공부를 했다. 술취한 아버지가 미치도록 미웠고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지독히도 가난이 싫었다.

우여곡절 끝에 건대에 수석입학하여 공짜로 아니 월급을 받아가며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 고1 후반부터 교회는 먼나라 얘기가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진리 탐구란 명목하에 불교에 심취했고 논어를 가지고 놀았으며 노자의 도덕경에 빠져 있다가 시회에 나와 사회 이곳저곳의 병폐와 가난한 자들의 고통 그리고 있는 자들의 횡포... 여기 있는 자들에는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루에 150여종이 멸종하고, 아프리카에서는 5초에 1명씩 죽는 판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을 강간한 놈을 사랑으로 감싸안으라... 도저히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하니 그럼 5초에 1명씩 죽는 아프리카에 단돈 몇 만원이라도 기부를 하는 필자가 죽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썩어빠진 이 돈세상'을 사람냄새 나는 '사람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살다보니 필자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고 참 하나님을 비난, 모욕에 이어 멸시까지 하는 사탄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참 하나님의 철퇴를 맞아 필자는 ○○교도소에 둘째동생은 △△감호소에 셋째 동생은 □□교도소에 부모님은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막내 여동생은 파탄난 집과 인연을 끊었다.

참담한 심정에 감옥에서 죽을 사람처럼 생활하던 중 1월 생일자들 나오라고 해서 가보니 어렸을 적 놀이터였던 그 교회에서 케이크와 과일 등 각종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예배를 보았다. 참으로 30년만에 교회를 가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에 참석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은 여전히 필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다.

그렇게 참회와 눈물을 흘린 후 성경책을 30년만에 다시 읽게 되었다. 어릴적 말동무였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고 필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 종이 되고 나니 대부이신

송요한 목사님이 찾아오셨고 대모이신 장지혜 목사님이 오셨다. 거기다가 교정선교회에서 ○○의 어머니라 불리시는 박효신 목사님께서 필자에게 양복을 한 벌 선물해 주셨다. 출소해서 밖에 나가보니 곳곳에 고난의 자리이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 자리인 십자가가 필자를 사탄의 계약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우뚝 우뚝 서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던 종으로 산지 몇 개월만인 지난 12월 25일 새벽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필자의 희생을 담보한 사죄의 편지를 쓰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치소 징벌방에 있지만 이 또한 교도소라는 밑바닥 거기서 징벌방이라는 밑바닥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형인 예수님의 동생인 필자에게 교정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

합의서가 들어왔다. 보석신청이 허가되면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두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자랑스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작품평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실하고 참된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한꺼번에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조금씩 형체를 드러내어 보이지 않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님께 용서를 빌며...

한동준



십수년을 한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님의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죄스럽게 살았죠. 그 한이 저를 바보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슬픔속에 어머님의 임종도, 장례식도 참석 못한 불효자식이지요. 하지만 한 번도 어머니께 용서를 빌지 못했네요.

그저 어머님 모신 선산에서 한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십수년을 그렇게 가슴에만 그리며 살고 아파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가 혹은 식당에 식사를 하시려 오신 어머님 연세의 어르신을 보면 더 그리워하며 어머님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식사비를 내드리면서 그저 그리움을 대신하며 보내곤 했습니다. 어리석은 불효자의 그리움과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어머님께는 사과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막내인 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투병중인데도 외국에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연락을 바로 못받아 불효자가 된 이 바보는 그 그리운 어머님 임종과 장례식에 참석 못한 것만 생각했지 투병중에도 평생을 끝없는 사랑을 주시며 저를 기다리시다 끝내 돌아가신 어머니께 진정한 사죄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 불효자식입니다. 그 아프신 매 순간에도 우리 막내 막내 했다는 이야기를 형님께 전해 들어 더욱 한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못난 사람은 끝없이 기다려주실 것만을 생각했죠. 한없는 사랑으로 저를 낳아 온갖 정성으로

기르시고 가르쳐 주신 나의 어머님께 사죄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차디찬 감나무 뿌리 밑에 자양분을 주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죽어서도 한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저를 임신한 몸으로 가족의 안위만 위해 불공드리시다가 저를 8개월만에 낳으신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온 정성으로 키워주신 그 마음을 이제 쉰 여섯의 나이에 잘못된 생각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다 내려놓고 새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에 생각해 보니 이혼하고 함께 하지 못한 자식들에게도 사죄를 했는데 정작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온갖 정성으로 키워주시며 평생을 자식 잘되기만 바라며 매 순간을 사랑을 주신 어머님께는 돌아가신지 십수년이 되었는데 모신 곳에 가서 울기만 했지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는 못난 자식입니다.

이제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다 가신 어머님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어머님 못난 불효 자식 이제야 진심으로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그 그리움속에 어머님께 용서를 못드린 바보가 새 삶을 준비하려고 고뇌하면서 이제야 정식으로 머리숙여 어머님께 사죄드리며 잘 살아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용서하셔서 다음 삶은 아프시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며 좋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통곡하며 머리숙입니다. 죽어서 어머님을 볼 수 있게 진심으로 세상을 밝고 맑게 웃으며 열어가겠습니다. 남은 삶을 옳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나의 어머님 그리운 올 엄마.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못났던 이 아들의 남은 삶을 먼 곳에서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올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을 한으로 남았던 부분에 사죄의 용서로 편안해지지 않겠지만 남은 삶을 바르게 살아서 그 사랑을 잘 알기에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을 가슴속에 새겨 봅니다. 어머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작품평

현명한 부모 밑에서 현명한 아이들이 자라고 사랑을 받은 아이는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합니다. 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작자에게도 사랑이 넘쳐 얼어붙었던 땅에서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수기



수기 공모작

이미경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하느님, 그리고 교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 곳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들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그동안 제가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법정구속 되어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91세 노모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여 홀로 살다가,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홀로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두 번이나 하시고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저는 구속되어, 어머니 걱정이 되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흘린 눈물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집에서 오랜시간을 병드신 노모의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 병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걸어 10개월 징역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속되어, 가장 가슴 찢어지는 아픔은 빈집에 병들어 홀로계신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구속 후 엄마 걱정에 열흘넘게 꼬박 잠을 못자고 울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병든 엄마를 돌봐드릴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구속돼서 어찌해야 할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들려오는 말에 동네 분들이 좀 돌봐드리고 있는 중이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치매증세가 심한 상태가 되고, 아직도 그런 상태라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병들어 누워계신 어머니 걱정에, 잠도 한숨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울다가 쓰러져, 법무부 앰블런스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 받곤 했습니다. 매일 매일 병든 노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아플 정도로 울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뇌리에 스쳐가는 것은 기도.... 하느님께 기도해야 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도외에는, 제가 구속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될 때는 무조건 기도를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하느님께 새벽기도를 하며, 병든 노모께서 무사하시길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두달, 세달, 네달, 다섯달 지나며 벌써 10개월 중 5개월이 지나 갔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가득하고, 반성 많이 하며,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병드신 노모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남은기간 수행생활 잘 하고, 교도소에서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하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행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그리고 교도관 여러분들의 관심과 보살핌 덕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출소하면, 성실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간호 잘 해드리고, 신앙생활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살겠습니다.

소장님, 교도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작품평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노모를 걱정하는 효심이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고난이 닦혔을 때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진실한 벗이라 했습니다. 다행히 고통을 함께 해주는 이웃들에게 감사한 마음 간직하여 남은 시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담게 되길 바랍니다.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양평 두물머리 | 홍용선. 물건의 포장재인 스티로폼을 재활용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풍경이다.

한반도의 허리, 민족의 젖줄

- 아리수 -

김상철 | 동덕여대 교수, 미술 평론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습니다. 전 국토의 70%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산이 많으니 골짜기도 많고, 골짜기마다에는 물길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골짜기마다에서 흘러 나온 물들이 모여 내를 만들고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내와 천, 그리고 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강들을 긴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압록강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는 두만강, 낙동강, 한강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강들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우리민족의 젖줄과도 같은 중요한 물줄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한강에 관한 것입니다.

한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줄기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발원지 역시 서로 다릅니다. 흔히 북한강이라 부르는 물줄기는 금강산에서 발원하고,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의 대덕산과 함백산 사이에 위치한 검룡소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길이로 보면 검룡소부터 서해바다까지의 거리가 더 길어 흔히 검룡소를 한강의 발원지라 여깁니다.



태백에 위치한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사철 마르지 않는 물이 솟구친다. 검룡소보다 더 위에 고목나무생이 있지만 이내 땅으로 스며들어 검룡소를 발원지로 여긴다.

사진출처 : 김정민, 검룡소(공유마당)

검룡소의 전설에 따르면 서해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하여 물길을 따라 오르다가 지금의 검룡소 자리에 머물렀다 합니다. 그리고 용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는데, 그 흔적이 지금의 소(沼), 즉 물웅덩이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인근 마을사람들의 소를 잡아먹는 등 폐를 끼쳐 사람들이 용이 살지 못하도록 이 못을 돌로 메워버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밖에 역시 같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에 있는 우통수(于筒水)는 각종 고문헌에 오랜 세월동안 한강의 시원지로

인식되어 왔던 곳입니다. 우통수의 물은 여타 물과 달리 맑고 깨끗할 뿐 아니라 비중이 무거워 강의 아래 부분으로 흘러 물이 오염되어도 항상 맑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합니다. 참고로 낙동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황지연못입니다.

한강의 다른 이름으로는 '아리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든 식용 생수 이름도 '아리수' 지요. 이 이름에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아리수' 라는 명칭이 언급된 기록을 살펴보면 광개토대왕비가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리수라는 표현이 아리수(阿利水) 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한강을 뜻하는 아리수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 아리수인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아리수'의 뜻은 크다(아리) + 수(水)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또 최근에는 아리의 뜻이 '크다'가 아니라 '물'이라는 뜻이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아리수'는 물+물의 동의반복을 통해 많은 물을 의미하고, 이는 큰물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아리수'를 한강이라 부르는 것은 '한'이라는 순수 우리말의 뜻은 '넓고 크고 길다.'라는 것에서 점차 변하게 된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한편 한강은 본래 우리말 '한가람'에서 비롯된 말로 '한'은 '크다, 넓다, 길다'는 의미이며, '가람'은 강의 고어로 '크고 넓은 강' 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록 논란이 있지만 순수 한국어 표기로서 '아리수'는 국어 관련 학회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한강'의 옛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강에 관한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초기의 한강은 한반도의 중간 허리부분을 띠처럼 둘러싼다는 뜻에서 '대수'라 불렸고, 고구려에서는 '아리수'라



우동수와 오대천 | 권용택. 한강의 시원지로 검룡소가 발견되기 전까지 한강의 발원지로 여겨졌다.

했으며, 백제는 '옥리하' 라고 했습니다. 또 신라는 상류를 '이하', 하류를 '왕봉하'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삼국사기', '신라편' 지리지에는 한강을 '한산하' 또는 '북독' 이라고도 했으며, 고려시대에는 큰 물줄기가 맑고 밝게 뻗어 내리는 긴 강이란 뜻으로 '열수' 라고 불렀으며, 모래가 많아 '사평도' 또는 '사리진' 이라고도 불렀다 합니다. 조선에 이르러 '경강' 이라고도 불렀으며 그 이전에 백제가 동진과 교통하여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강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고쳐서 '한수'라 불렀고, 그 뒤부터 옛 이름은 차츰 사라지고 '한수' 또는 '한강'으로 이름이 정착된 것 입니다.

검룡소에서 흘러나온 물은 태백시 상사미동 인근에

이르러 비로소 골지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아직 강이라 부르기에는 수량이 적고 강폭이 좁아 천(川) 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이후 물은 흘러 정선군을 지날 때면 조양강이라 불리다가, 영월군에 이르면 동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경기도 양평군에 이르는 구간은 남한강이라 부르고 경기도 양평의 양수리, 즉 두물머리에서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만나 한강이라 불리게 됩니다.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의 한 줄기를 이뤄 수량과 강폭을 크게 키울 수 있게 한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한 금강천이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에서 금성천을 합친 후 북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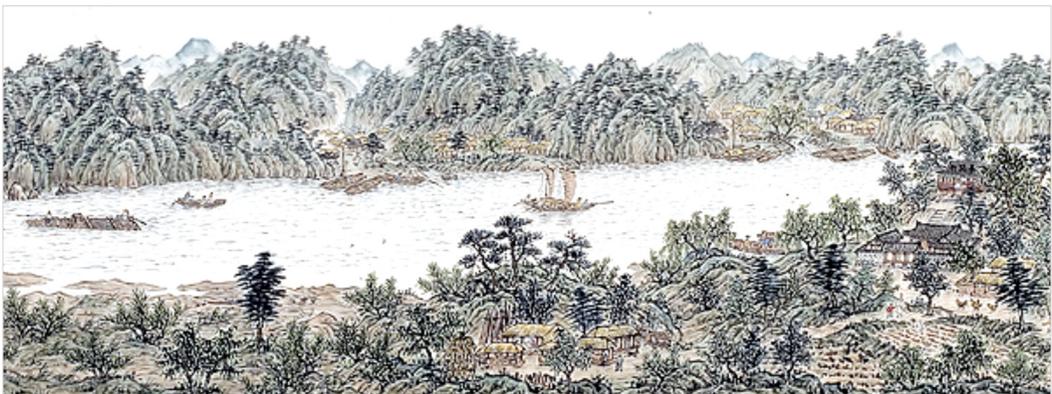
화천군을 거쳐 남쪽으로 흐르다가 춘천에서 소양강과 만납니다. 소양강은 북한강의 가장 큰 지천으로 인제군 서화면에서 발원한 인제천이 인북천이라는 이름으로 남류하다가 설악산에서 발원한 북천과 인제읍에서 합쳐진 후 홍천군 내면에서 발원한 내린천과 합류되어 춘천으로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이후 북한강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홍천군 서석면에서 발원한 홍천강과 합류하여 외서면 청평리에서 조종천과 합친 후 양평군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해 한강을 이룹니다. 북한강의 풍부한 유량은 댐 건설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 소양강 다목적댐을 비롯해 화천·춘천·의암·청평댐 등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북한강 유역 내 가장 큰 거점도시인 춘천은 원래 북한강에 배를 이용한 물자수송이 번성했을 때 종점 역할을 하던 곳으로 조선초기에는 소양강창을 두고 북한강 유역의 세곡을 수집·운반하고 물자 집산지를 이루었으나 일제 말 청평댐 건설로 배의 운항은 막혔습니다.

남북한강이 만나 수량이 크게 늘린 한강은 조선 시대에 물자를 운송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멀리 강원도에서 벌목한 소나무들을 뗏목으로 만들어 서울로 내려오고, 서해 바다의 소금이나 해산물,

그리고 쌀 등 생활필수품을 내륙으로 나르는 중요한 통로였지요. 그래서 강 줄기에는 많은 나루들이 생겨났습니다. 조선 왕조는 지방의 각 군현에서 거두어들인 조세미를 인근의 강가나 해안의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물길을 이용해 한양으로 운송하였습니다. 이때 한강 상류로부터는 경상도·강원도·충청도와 경기도의 조운이 모여서 용산 인근 강가의 창고에 모였습니다. 또 하류로부터는 북으로 황해도, 남으로 충청도·전라도에서 물자를 싣고 온 배들이 지금의 서강(西江) 연안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강에는 광나루(廣津), 삼밭나루(三田渡), 서빙고나루(西氷庫津), 동작나루(銅雀津), 노들나루(露梁津), 삼개나루(麻浦津), 서강나루(西江津), 양화나루(楊花津)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 광나루·삼밭나루·동작나루·노들나루·양화나루는 한강의 5대 나루로 손꼽혀 일찍부터 각종 물품과 사람들의 집합 장소로서 유명하였지요.

이러한 나루터를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건네주던 나룻배는 1970년대 이후 강 위에 많은 다리가 개통됨에 따라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루가 있었던 곳에는 다리가 놓이게 되었는데,

한강대전도(부분) | 김학수. 100리 한강 물길을 그린 대작의 일부입니다.



광나루에는 광진교와 천호대교가, 삼밭나루에는 잠실대교가, 독섬나루에는 영동대교가, 두모포에는 동호대교가, 입석포에는 성수대교가, 한강나루에는 한남대교가, 서빙고나루에는 반포대교가, 동작나루에는 동작대교가, 흑석진에는 한강대교가, 노량진에는 한강철교가, 용산진에는 원호대교가, 마포나루에는 마포대교가, 서강나루에는 서강대교가, 양화나루에는 양화대교와 성산대교가, 공암나루에는 행주대교가 각각 가설되어 서울의 남과 북을 잇고 있습니다.

먼저 남한강을 따라 내려가다 서울 즈음에 이르러 만나게 되는 강동 송파 일대에는 한성백제의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암사동은 신라시대에 9개의 절이 있어서 구암사(九岩寺)라 하였고, 그중 백중사라는 절이 바위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한자명으로 암사(岩寺)라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암사동에는 선사유적 뿐 아니라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남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한 곳으로 지금의 올림픽 공원 안에는 당시의 도성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서린 아차산이 나타납니다.

송파진 | 겸재 정선,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겸재 정선은 한강을 주제로 빼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중 지금의 잠실 인근 송파나루를 그린 그림이다.



이어서 광진구 광장동 남쪽에는 광나루가 있습니다. 광나루는 강폭이 넓은 곳에 나루, 또는 광주로 가는 나루가 있으므로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 이곳에 놓여있는 광진교라는 다리는 바로 이 지명에서 따 온 것입니다. 광나루를 지나면 아파트들이 즐비한 잠실(蠶室)이 나오는데, 잠실은 잠실(蠶室)은 누에를 사육하는 곳입니다. 조선 초 이곳에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잠실을 두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는데 서울 동쪽에 있으므로 동잠실 또는 잠실리, 잠양동, 부리도 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의 서대문구 연희동에도 잠실이 있었는데, 이를 서잠실이라 하고, 서초구 잠원동의 잠실은 송파구 잠실보다 늦게 생겼으므로 '신 잠실'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봄이면 임금은 지금의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선농단(先農壇)에 나가 모내기를 하고, 왕비는 잠실로 행차하여 뽕잎을 따 누에에게 먹임으로써 술선수범하였다고 합니다. 잠실은 원래 부리도와 함께 섬이었으나 강남개발에 따라 내륙으로 변했으며, 간척된 곳에는 올림픽공원과 서울종합운동장이 지어 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롯데월드에는 석촌 호수는 바로 옛 한강이 흐르던 자리로 물길에 닿았던 곳을 막아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압구정 | 겸재 정선. 단종을 영월 청령포로 유배 보내고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의 최고 참모였던 한명회가 지은 호화별장. 지금의 압구정 현대백화점 인근으로 추정된다.





마포나루 | 김학수. 마포는 서해를 통해 들어온 물자들이 서울로 풀리던 중요한 포구이다. 황포돛대를 단 배들이 드나들었으며, 특히 새우젓의 유통 중심이어서 '마포 새우젓 장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지금의 송파구 송파동에는 송파진이라는 큰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지금의 석촌동 인근으로 경기도 광주나 용인, 이천 등지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원래는 인근에 삼전도라는 나루터가 상류의 광나루와 하류의 중랑포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성동구 왕십리와 독섬 사이를 지나, 신천동과 잠실동이 있는 하중를 건너 송파에 이르도록 뱃길이 통하는 곳이었지요. 이 나루터는 서울과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나루로 서울에서 광주, 이천, 여주로 나가는 지름길로 중요한 교통로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던 인조가 단을 쌓고 머리를 언 땅에 박으며 오랑캐라 무시했던 청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곳이기도 하여 사용을 기피하여 송파나루를 주로 이용했다 합니다.

지금의 청담대교 부근에는 왕실의 사찰이었던 봉은사가 자리하고 있고, 지금의 COEX자리에는 승려들의 과거시험 장소인 승과평이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독섬이 나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군대를 사열하거나, 출병할 때, 이 섬에서 대장을 상징하는 깃발인 독기(纛旗)를 세우고, 독제(纛祭)를 지낸 곳이라 하여 독섬, 독도라 불리었습니다. 이후 경음화되어 '독섬'으로 불리게 된 것이지요. 본래 포구가 있었으나 도시화가 시작되고 한강 수운의 쇠퇴로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여 한강변은 유원지로 조성되어 1970년대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한강의 강폭은 넓어져 물 흐름이 완만해 집니다. 지금의 서울 옥수동 한강변 즉 동호대교 북단에는 한강 동쪽의 첫 번째 포구인 두모포

(豆毛浦)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흘러오는 한강의 본류와 북쪽에서 흘러오는 중랑천의 물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두 물이 서로 어우러진다는 의미로 두뭇개라 불렀고, 한자로 옮겨지면서 두모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학자관료를 키우는 독서당이 있었고, 동쪽으로 너른 들판이 열려 말을 키우는 말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과천으로 옮겨간 경마장이 원래는 독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물의 흐름이 완만하여 마치 호수처럼 잔잔하고 풍광이 뛰어나 동호(東湖)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이곳에 놓여있는 동호대교의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두모포는 농산물과 목재 등 각종 물산이 드나드는 나루터로서 경상도와 강원도 지방에서 남한강을 경유하여 오는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곡식을 운반하는 세곡선이 집결했던 곳이고, 왕실에서 사용할 얼음을 보관했던 얼음 창고인 동빙고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일반 관리나 서민들을 위해서도 얼음 창고를 만들었는데 그 위치는 지금의 용산구 서빙고동 파출소 인근이라 합니다.

동호를 지나면 한강진나라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용산·충주로 통하는 큰 길의 요충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의 남산 남쪽기슭인 지금의 한남동 앞의 강을 한강이라 하였고, 이곳의 나루를 한강도라 하였습니다. 도성에서 남소문을 나서면 바로 한남동의 한강마을이었기 때문에 수도 방위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지요. 한강진을 지나면 노들나루에 이릅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노량진에서부터 양화대교 근처까지 버드나무가 많았으며, 특히 노량진에는 백로들이 많이 날아와 '노들'이라고



양화진 | 겸재 정선. 양화대교 인근으로 우뚝한 바위는 절두산이다. 천주교 신자들의 머리를 잘라 한강에 던져버려 이런 섬뜩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이다.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나루터는 시흥·수원은 물론 충청도·전라도로 통하는 대로로서 중요성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강 최초의 다리인 한강철교가 1900년 놓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지금의 마포대교가 놓인 곳은 바로 유명한 마포나루가 있었습니다. 일명 삼개나루라고도 불렀던 이곳은 주로 상선들이 운집하였으며, 옛 부터 새우젓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 '마포새우젓장사'라는 애칭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여의도는 마포나루 건너편으로 예전에는 백사장이었으며 시흥을 거쳐 수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모포를 동호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금의 용산 일대의 한강을 남호(南湖)라 하고, 마포 지역의 한강을 서호(西湖), 혹은

서강(西江)이라 불렀습니다. 서강대학교의 명칭은 바로
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마포대교 아래에는 양화나루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지역의 북쪽으로 '양화도'라고도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양천을 지나 강화로 가는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상에 위치하였던 교통의
요충지로 바닷물이 용산까지 밀려와 한때는 용산이
으뜸가는 나루였으나 소금을 보관하는 염창(鹽倉)의
모래언덕이 조수의 침입을 받아 허물어지고 점차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큰 배가 용산까지 직접 못
들어 오자 양화진이 요충이 되어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 나루는 경상·전라·충청·경기도에서 올라오는
곡물을 서강 광흥창까지 운반하는 나루로서 농산물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려
이래로 양천·강화를 가려면 반드시 이곳 양화나루를
건너야 했으며, 한강 가운데에서도 가장 경치가 아름답고
정자가 많았던 곳으로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이
지은 '망원정'(望遠亭)이 있어 망원동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곳입니다. 이곳은 개화기 때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金玉均)이 처형된 곳이기도 하고,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 많은 신자들이
처형되어 '절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천주교
순교성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나루터를 지나 한강은 난지도 등의 섬을
거쳐 행주나루터에 이름으로써 서울을 벗어나 황해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난지도는 한강가의 작은 섬
이었는데 그곳을 서울시의 쓰레기로 매워 하늘공원
으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이곳 부근에는 수중보가 설치
되어 한강의 수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서해의 바닷물이 밀려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흐른 한강은 임진강과 만남
으로써 끝이 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한강의 모양과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여전히 한반도의 허리띠이자 민족의 젖줄
로서의 상징은 변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모래산 건설 | 이문주. 양화나루와 행주나루 사이에 있던 난지도를 서울의 쓰레기로 매립하여 산을 만들었다.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꾸며졌다. 크루즈를
타고 가는 여행객과 쓰레기 매립 장면을 대비시켜 역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엄마 죄송해요



윤현수

19세 소년수 나이에 들어와 어느덧 성인이 되어 잊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9월 18일 친구의 면회로 믿을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이 22세 아직도 어린 저였기에...

그때 저는 엄마의 이별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 한달전만 해도 멀쩡히 저에게 면회도 오시면서 이야기도 하며...

잔소리도 해주시면서 항상 저의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위독하시다는 말과 결국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친구의 면회 였기에 처음에는 장난인줄만 알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며...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의 면회가 끝나고 공장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계시던 접견 담당님께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의 입에서는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을 하고 문앞에 사회복지과 계장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 진짜구나 진짜 돌아가셨구나 이제 나는 어떡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느낌이 들었고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저의 입에서는 ‘엄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이 싫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 할 걸 왜 도대체 왜... 엄마와 여행가기로 했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로 하고 결혼하는 모습도 보시기로 했었는데 왜 일찍가셔서 들어오기전 조금이라도 잘했을걸 하면서 하루 하루 후회를 하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직도 살아 계시는 것 같고 옆에서 아들 부르는 것 같고 이제는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엄마 꿈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순간 생생히 머리 안에서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함께 일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으며 전화 통화를 하며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불러드리고,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도 맛있게 먹던 기억 이제는 할 수 없다는게 추억으로 남았다는게 지금까지 잊지 않고 편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진짜 조금만 잘 할 걸 왜 밖에 있을 때 몰랐을까... 저는 그래서 어른들이 왜 부모 살아계실 때 잘하라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어디서 절대 볼 수 없던 너무 착하시고 재미있던... 누구에게나 밝은 분이셨기에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이름을 아들 윤현수의 가슴에 담아두려 합니다.

엄마 이제는 마음편히 그곳에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엄마의 못다한 세월까지 하늘에서 보고계실 엄마. 저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못난 아들 이제 용서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싶고 그리운 우리엄마 글로 밖에 하지 못했던 말 이제는 마음으로 전해 보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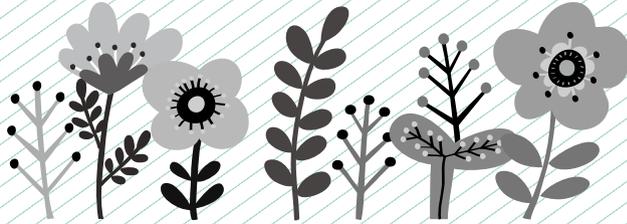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2020년도 어느 멋진날에...

아들 현수 올림

작품평 : 소년원에서 성인이 되어 ○○교도소로 이감되었나 봅니다. 친구가 면회 와서 전해준 소식이 어머니 별세 소식이었다니! 글쓴이의 나이 스물두 살이면 어머니도 40대일 텐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들이 눈에 밝혀 눈을 감지도 못한 채 돌아가신 게 아닐까요. 남은 형기 무사히 잘 채우고 출소하여 본인의 행동으로 효도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마음속으로 크게 엄마!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럼 모든 일이 잘될 겁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임흥덕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더군다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크면, 너무 미안하면 입 밖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이라고 느껴지는 못나고 부족한 아들입니다.

지난해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드려야 하는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옥바라지만 하시다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회에 적응을 했었는데 어머니를 잃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황은 또 다시 저를 찾아왔고 방탕한 삶은 다시금 언제 열심히 살았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통의 문자 메시지가 제게 왔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홀로 남게 되신 올해 일흔 다섯 되신 아버지셨습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한 충격을 받고 단숨에 집에 뛰어 들어 갔습니다. 얼굴은 반쪽이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가 홀로 외롭게 소파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천하에 이런 불효자는 없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 눈물이 터져 나오더니 죄송한 마음이 한 번에

용서를 구합니다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만 슬픈 줄 알았습니다.

저만 힘들고 괴롭고 아픈 줄 알았습니다.
헌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 모시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한 후 어머니의 유품정리를 하고서 새로 집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지 5일 만에 방탕했던 삶에 대가가 남아 있었기에 또 다시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치장을 거쳐서 이곳 ○○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주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에서 이곳 ○○구치소 까지 아들 접견을 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훌가분해지고자 내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털어 내고자 함에 하려는 사과라면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치유한다기보다 애써 잊고 사시는데 또 다시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몸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바로 엄마를 잃은 아들의 슬픔보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홀로 힘들어 하실 때 위로를 해드리며 강건한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을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매주 매번 접견 시간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것을 반복하게 되다보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해답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지난 잘못들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 깊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로 인해 상처받은 내 아버지에게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상처를 치유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해답이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가 해답이고 지금 이 순간이 정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거듭나는 삶 속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되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서는 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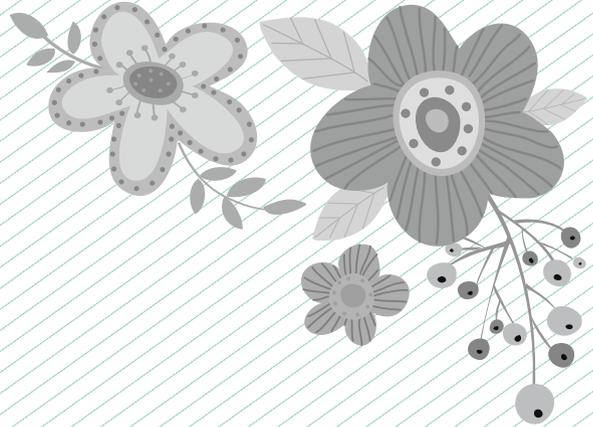
이렇듯 저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써 믿습니다.

작품평 :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며 시름에 잠겨 있는 일흔다섯의 아버지를 위로해드려야 할 그대가 어찌하여 영어의 몸이 되어 있던 말입니까. 아내를 잃은 아버지한테 가서 잘해 드리려면 형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방향과 방탕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다면 그대는 '돌아온 탕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글



반상윤

지난 10여년 동안 저는 소위 대표물건 판매업자 였습니다.
핸드폰, 대포통장, 070, 에그 등 불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판매했던...

지금은 ○○구치소 △△△△번으로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7개월째 접어들고, 누런 미결 수의
에서, 파란색 기결 수의로 바뀌 입은지 대략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46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3
번째 구속으로 사회에 남겨진 10살(3학년) 딸과 대학1학년 아들의 모습이 파란색 (교정노트) 앞
뒷면 여백의 사진으로만 봐야하는 시간, 잔여형기2년이 너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보이스피싱... 다른사람의 얘기인줄 알았었고, 또 그런줄 알고 살았었고, 막상 본인의 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닐꺼야, 잘못된 것일거야! 내가 왜? 보이스피싱 범이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100번은 되새긴 듯 싶습니다. 맨날 보는 사진속의 딸은 해맑게 제
무릎에서 웃고 있던 4세의 딸인데... 지금은 훌쩍 커버린 10세의 딸이고, 과거 2012년 8월 구속
되었을 적, 그때 반성하고 99% 참회했더라면, 지금 사진속의 딸만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진,
않을텐데...

오전 8시 일과가 시작되면 어머니와 21세의 아들에게 매일 편지를 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로 인해서 본의가 아니게 피해를 본 다섯분의 피해자들에게 지면으로지만 용서를 빌어봅니다.
비록 값을 목적으로 합의를 했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기각한다! 뒷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지만, 기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니 다 어느 정도 감수하게 되고,
저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고는 합니다.

합의하고 돌아갈수 있을거라 헛되고, 어리석은 이 바보같은 사람….

사진속 가득 웃고 있는 제 딸이 있는 시간… 늦은 봄이지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섯분의 피해자들과는 뭐라 입이 한 천개쯤 된다해도 할 말은 없지만, 지금에 와서 꼭 한마디만 이라고 한다면 진짜 죄송하고 다시는 이같은 이리에 휘말려서 자곡들과 제아들 딸을 위해서라도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딸이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시간으로… 그리고 원망도 하고 싶습니다.

범죄를 위하여 돈이라는 매개로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는 진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매일 겪는 6시 15분, 앞으로 2년 남은 동안 저로 피해본 다섯분의 피해자 분들과, 가슴 태우며 자식새끼 한뼉잠 잔다며 냉방에서 지내시고 계신 어머니, 휴학하고 아빠 약값(지병치료약) 보탠다며, 고깃집 불판 닦는 아들, 엄마랑 떨어져서 방과후 홀로 남겨진 10살… 어린 내딸 고은이까지 이 모든 사람 한사람 한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간다면 음지에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세상범죄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 그런 세상 봄날 봄빛 같은 따뜻한 세상이 오길 바라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작품평 :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다섯 분과 자신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타인이 애써 번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집집이 다 꼭 필요한 돈을 거짓말로 가로챈으로써 얼마나 큰 근심을 하게 했는가를 생각하면 2년 6개월의 형량도 긴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 아들을 둔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둔 열 살의 딸과 대학 1학년생 아들, 그런 남편을 둔 아내의 깊은 슬픔을 헤아려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쉽게 쓴 시는 쉽게 잊혀진다고 말합니다. 쉽게 번 돈은 마구 쓰게 마련입니다. 내 맘으로, 내 노력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최준혁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듯 했고 내 머릿속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폐부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숨죽여 성모마리아 동상 앞에 기도했다.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얻어낸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분을 기망하여 억 단위의 가상화폐를 편취하고 재판에 넘겨진 후 초조하게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평생 범죄에는 발들일 일 없었을 뿐더러 공시 및 취업준비를 하는 평범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던 나였기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집 근처 성당에 가서 평소 찾지도 않았던 신을 부르짖는 비겁함을 보이는 것이 다였다.

부모님께 내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수임만 해주면 다 해결 해줄 것처럼 호언장담하던 변호사는 부재중 전화 20통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어쩌다 전화가 걸려올 때면 수임료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새까맣게 타들어 내 속을 다시금 뒤집어 놓곤 했다. 내가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는지 수임을 해도 어찌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내신세가 처량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뭔가 해주겠지 하는 실낱같은 기대감이 시간이 점차 흘러감에 따라 차츰 절망으로 바뀌어 갔다. 야속하게도 차일피일 다가오는 선고일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감옥에 간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미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이 비행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내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서 저렇게는 되지 말자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거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끝없는 심연에 추락 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감옥의 모습은 미디어에서

본 것을 토대로 상상한 것에 불과하였다. 영화 빠삐용에서 철창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줄기 아래 새카만 시멘트 바닥에서 오지 않는 잠을 청했을 빠삐용은 신에게 자신의 죄가 뭐냐고 묻고 있었다. 신은 일망의 주저함과 동정도 없이 냉혹하게 일갈했다.

시간을 낭비한 죄. 선고를 앞둔 여름날 밤 한동안 그 장면은 뇌에서 명멸하였다. 양손을 포박 당하고 수의를 입은 채 나 역시 질문을 던진다. 이어지는 대답 속에 한 치의 자비심도 없이 얼음 처럼 차갑다. 내가 저지른 죄를 두 귀로 들으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에 고개를 떨구고 사각 틀로 구획된 좁은 방에 갇힌다. 남은 기회도 희망도 없이 신체의 구속으로 내 영혼의 자유마저 빼앗겨버리는 악몽이 늘어나버린 오디오 테이프처럼 반복되며 눈앞에 생생하였다.

나는 정말로 겁이 많은 사람이다. 흑자는 아이들끼리 치받는 것을 그렇게 끔찍한 것이다, 사회화의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학교에서도 싸워본 일이 없이 조용한 학생이었다. 욕하면 욕하는 대로 때리면 맞는 대로 참으로 지난 인생이 비굴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갈수록 소심해져만 갔다. 사람대하는 것도 두려워져갔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남들처럼 살고자 했던 마음에 공무원이 되어 일을 하고 싶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돈이다. 밥을 먹으려 해도, 내 몸뚱이 뉘일 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오랜 벗을 만나 식사라도 하려해도 돈이 든다. 심지어 옥살이를 하려고 해도 영치금이라는 것이 들어가니 이 돈과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없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아직 뚜렷이 이룬 것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던 와중 나의 억눌린 욕망과 한탄을 대변이라도 하듯 17년 말 가상화폐시장은 무섭게 들끓고 있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세와 함께 시장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돈이 모여들었다. 학생, 주부, 막노동자, 기업총수 남녀 노소 할 것 없는 욕망과 탐욕의 한가운데에서 끊임없는 희비가 교차하는 난투장으로 말이다.

나 역시 무엇인가 홀린 듯 가상화폐라는 미지의 세계에 첫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렵사리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을 4차 산업혁명 그 자체로까지 일컫는 어느 신문의 사설을 보며 이왕 시작한 것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에 각종 책과 인터넷 자료들을 통독하며 조금씩 내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익혀나갔다. 투자보다는 전투적인 광란의 투기에 가까운 시장에서 나는 나의 남은 학업과 취업활동을 위하여 준비금이 있었으면 했다. 더

용서를 구합니다

빨리, 더 많이... 하는 조급한 생각에 나는 온라인에서 기망행위를 하여 부정하게 가상화폐를 편취하였고 부끄럽게도 이렇게 수인이 되어 나의 가까운 청춘에게도 나의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크나큰 죄를 짓고 말았다.

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였고 그에 따른 죄 값을 받고 있다. 지금 나의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 부디 내가 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반드시 속으로 곱씹어 주기 바란다. 완전무결한 범죄는 없으며 누구라도 언젠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당신도 나도 피해자에게는 물론 가족들과 우리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

우리가 여기서 보낸 청춘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 어떤 재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것이며 부모님의 가슴에 박은 대못은 평생토록 다시 뽑아낼 수 없다. 왜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아왔던가? 우리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다 결국 영어의 몸이 된 사람들이다. 세상에 지름길이란 없으며 한걸음 한걸음 내딛다 보면 산중턱에서 어느새 정상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나는 왜 이제야 깨닫는가.

세상에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밥상머리에 어머니와 고즈넉이 마주앉아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단순한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이 왜 이제야 뼈마디에 절절이 사무치는가. 꽃이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이제야 느끼며 지나간 세월을 회한하는가.

군자는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제 눈에 티끌부터 보라 했거늘 초범보다 누범이 더 많은 수용 시설의 행태가 눈에 밟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일까. 결코 이곳 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 어떤 범죄행위에도 돈벌이 및 생계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골에 새기라.

더 이상 내 인생과 부모님께 죄짓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금 이 세월의 목적이자 의미이다.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수없이 되풀이하여 되뇌는 말이기도 하다. 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단 한명이라도 내 심정을 알아주어 올바른 길로 가기를 간곡히 바란다.

끝으로 신의 저버린 파렴치한 기망행위로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석고대죄하고 싶다. 진심으로,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사죄드립니다. 비록 용서 받을 수는

없겠으나 제 형의 집행으로 티끌만큼이라도 분노의 감정이 사라졌기를 바라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끝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며 면회장의 무표정한 유리창 앞에서 목 놓아 오열하셨던 어머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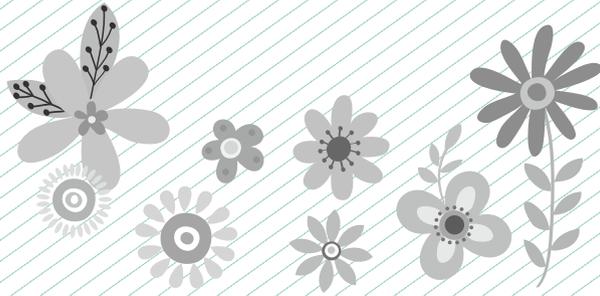
제 마지막 20대를 이곳에서 수감되어 보내며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작품평 :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얻어낸 신뢰를 바탕으로 억 단위의 가상화폐를 편취했으니 사상누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꿈이 큰 것은 좋지만 그것이 허황되다면 버려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나쁜 꿈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시장이 그대에게 꿈을 심어주었는데 그만 악몽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맘으로 번 것이 아니면 그 재화를 멀리하십시오. 세상의 이치는 맘의 가치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대를 따뜻하게 안아줄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용서를 구합니다



김영민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고 비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뜨고 지나긴 추위 끝에 봄은 오듯이 희망도 절망의 끝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혹의 나이를 훌 넘은 40대 중반의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귀하게 자라진 못하였으나 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여는 평범한 가정들처럼 행복한 유년시절을 거친 후 ○○기계공고 자동차과를 졸업 후에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고, LG전자, 호텔 프론트 주임 그리고 의류매장 매니저 등 여러 전문 관광 서비스직에 다년간 근무한 앞날이 밝은 유능한 청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사내 커플로 발전, 동거 후 딸아이라는 소중한 새 생명을 얻고 그 얼마 안 된 시점에 본인이 목숨만큼 사랑하였던 정말 천사 같았던 사랑하는 아이엄마를 2009년 9월에 <뇌졸중 및 합병증>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뒤 그 충격과 후유증 여파로 수없이 많은 방향과 자포자기로 안일한 정신 상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법의 지엄함에 결국 이렇게 자유를 잃고 영어의 몸으로서 하루하루 깊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속 깊은 말과 같이 못한 애비이지만 본인 역시 국민 딸 바보입니다. 올해 12세가 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본인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딸 김윤미는 아이 엄마와 사별하기 얼마 전인 2009년 3월 14일 생입니다. 6개월도 안되는 간난 애기일 때 추억뿐이라 지애미를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딸아이 생각하면 설움 북받치어 하염없이 회한의 눈물이 흐릅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딸아이를 못보고 지냅니다. 행여나 수의 입은 모습 못한 모습 어린 시절 기억에 충격과 상처 될까 싶어 너무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장모님과 딸아이에게 연락도 못하고 노심초사 모든 걱정 내려두고 깊은 성찰과 참회의 바른 생활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그 피해금액이 크든 소액이든 타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드렸기에 죄질의 중함과 가벼움을 떠나 모든 잘못의 원인은 본인 탓이고 송구함과 죄송스러움 진정 죄 값의 형벌을 선고받고 실행을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드리는 마음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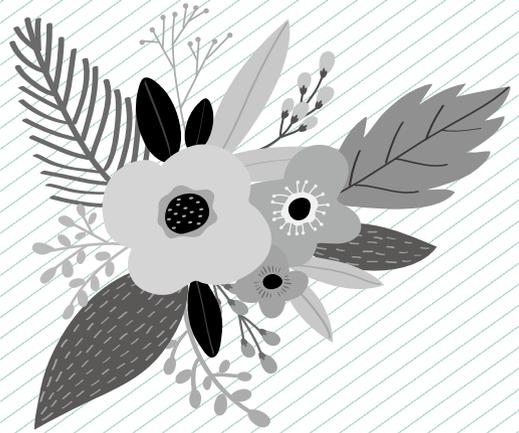
또한 하늘나라 천국에 먼저 떠난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 엄마 김은주에게 “은주야! 잘 지내오? 당신 없는 긴 세월 홀로 수없이 많은 방황하다 이모양 이꼴로 살고있소. 정녕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진정 용서를 구한다고. 아픈 병마와 싸우다 홀로 떠난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응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쫓고 힘든 이겨울 오늘의 인고와 고통의 시간들이 위기가 아닌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딸아이 그리고 고생하시는 장모님을 위해 앞으로 사회의 일선에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 꼭 필요한 일꾼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기위해 내 가족의 소소한 일상 행복을 다시 한번 느낄수 있도록 성실과 겸손 배려심을 항상 상기하고 그리 긴 옛 시절이 아닌 당당하고 정의롭던 패기 넘치던 그 시절 그 각오로 앞으로는 오직 너무 그리운 너무 사랑하는 딸아이만 바라보며 천사같았던 아이 엄마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자랑스러운 애아빠가 되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방황중에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 추운 겨울에 한강다리까지 가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저 자신이 너무도 무책임하고 못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로 인해 죄값을 받는 이곳 교도소에서 자살예방상담 2회나 받았지만 하늘나라 있는 딸 아이엄마가 이 세상 힘들고 고달파도 죽지말고 딸아이 잘키우고 책임감 있게 살라고 이곳에 온것이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1년 조금 덜남은 수용생활 뜻깊게 마무리하여 사회의 일선에 복귀하려 합니다.

작품평 : 아내를 너무 일찍 떠나보냈군요. 두 사람의 한 점 혈육이 생후 6개월도 안 되었을 때 떠난 그분을 대신해 아기를 잘 돌보아야 할 그대가 ○○에 왜 계시는지. 장모님도 딸도 그대가 출소하기를 손꼽으며 기다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아내의 뒤통까지는 못하더라도 아빠 노릇은 이제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조은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 ○○번 조은비 입니다.

저는 제 어린 두 아이에게 엄마로써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4살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과한 욕심으로 인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업 부도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그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면 잘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야만 좋은 부모하고 생각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소홀해졌고 일을 해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괜한 짜증도 내어 아이들에게 저는 못나고 마이너스인 엄마였습니다.

2018년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날 아침 유난히 그 날 첫째는 엄마와 있고 싶어 했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4살 아들을 억박지르고 혼내며 강압적으로 옷을 입히는 제 모습에 아이는 잔뜩 겁이 나서 바지에 쉬를 하였고 그것마저 큰 소리로 혼을 내며 우는 아이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질게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혼내지 말고 안아줄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꼭 안아줄걸.

이곳에 지내면서 저는 마음이 쓰리게 아팠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길 곳 없는 10개월 둘째는 교도소에 데리고 들어와 무더운 여름 교도소 방 안에서 땀띠와 싸우며 저와 함께 두 달을 지내고 고생만 하다가 남편에게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모유 수유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내보내면서 “엄마가 꼭 금방 갈게”라며 약속하였으나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저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헛된 욕심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지난 날 제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루하루 아이들에게 미안함으로 자책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란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두 해줄 수 있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이고 행복이고 잘 사는 길 인줄 믿고 살았지만 정작 이것이 행복이 아님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이들을 소박한 무엇이라도, 엄마와 스케치북에 크레파스 하나로 집에서 그림놀이 할지라도 엄마와 눈을 맞추고 사랑을 주는 그 자체만으로 아이들은 행복해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엄마의 품 안에서 사랑이었음을.

가끔씩 엄마를 보러 교도소로 접견을 오는 올해로 6살, 4살이 되는 아이들 큰 아이는 비록 모자란 엄마일지라도 엄마가 좋다며 “엄마 언제 나와? 엄마랑 함께하고 싶어” 라며 엄마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엄마와 생일을 보낸 적 없는 10개월에 교도소에서 먼저 나간 둘째는 이제 막 말을 시작하여 “엄마 사랑해요 엄마랑 살고 싶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1년 7개월을 보내며 매일매일 후회를 하고, 좌절도 하며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더욱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들이고 이곳에서의 시간을 끝낸 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면 정직하고 현명한 좋은 엄마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물들이! 너희가 엄마의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무 행복했단다. 너희만큼은 남부러울 것 없이 키우고 싶다는 엄마의 못난 욕심으로 인해 너희에게 큰 상처를 주고 외로움과 고통을 안겨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곳에서 많이 반성하고 배워서 돌아갔을

사랑하는 어린 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뎌 너희에게 사랑이 넘치는 엄마가 될게 사랑하는 내 보물들 예쁜 내 아기들 못난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정말 너희를 꼭 안고 싶다.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고 많이 미안해 우리 다시 함께 할 날까지 조금만 더 견디자.

엄마가 너희 곁으로 가면 함께 하지 못했던 너희의 생일들 함께 촛불을 켜고 축하해줄게 유치원 씩씩하게 아프지 않고 잘 다녀줘서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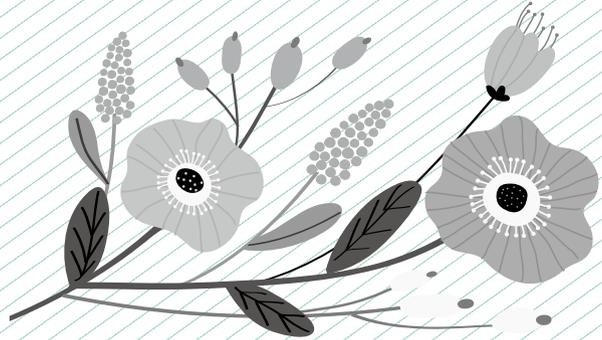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엄마를 기다려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도.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사랑해.

우리 아기들♥ 소중한 내 아기들 보고 싶다”

작품평 :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네 살 아들을 혼내며 보냈는데 그것이 이별의 순간이었군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꼭 안아줄걸.” 그렇게 보내 후회의 눈물을 더 많이 흘렸다고요. 10개월 된 둘째아이는 무더운 여름, 교도소 방에서 땀띠와 싸우며 2개월을 엄마와 함께 있다 아빠의 품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엄마의 손길인데 아이들이 불쌍하고 은비님의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남은 형기 무병 무탈하게 보내고 빨리 집으로 달려가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정우철

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정우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나온 실수를 반성하며 날마다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우철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용서를 구합니다”의 공모소식을 접하고 속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써 봅니다.

저는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달마다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고 이제는 회사의 규모를 조금 키워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더 큰 사무실로 옮기고 각 지방에 지사도 설립해야 하는 데 확장 비용이 생각보다 커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중 마침 회사의 투자를 원하는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확장 작업을 진행하며 순조롭게 일을 마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극심한 불경기가 발목을 잡았고 마침내 몸집이 커진 회사는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빠른 규모확장이 화를 불러오고 만것입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서로 곤란한 지경이 되었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제게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서로의 상생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데 산술적 이해 관계로만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100%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가정의 미래를 망가뜨렸습니다. 이곳에 오기전에 저는 그분의 한숨과 탄식을 자업자득이니 결과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발뺌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같이 잘해보자 했던 일이 결국 나의 무지로 인해 여기까지 온 것 같으네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참회의 눈물과 앞으로 흘려야 할 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려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올바른 삶의 청사진을 그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참 쉽게 살았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이치를 무시하고 열이 되는 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땀의 결과보다는 “불로소득”을 위한 잔피만 부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시간의 답습은 없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 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고 했지만 계장님, 주임님께서 고충도 처리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올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힘차게 사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 길을 돌아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뒤돌아 보면서 참회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가야할 그 길이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가슴이 벅차 오른답니다. 지나간 길을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 길로만 가려합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육체로 나아가서 열심히 노력하여 변제해 나아갈 것입니다. 수용자 여러분 올 새해에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품평 : 동업자에게 큰 죄를 지었네요. 평생 모은 돈을 믿고 투자했는데 그것을 날려버린 것은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집안 전체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한숨과 탄식을 투자를 잘못된 자의 자업자득으로 여겼다고 하니 정말 마음으로 더 큰 죄를 지었군요. 하지만 진정한 참회의 길에 이르고 있어 안도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참회의 눈물과 앞으로 흘려야 할 땀”이라는 말이 멋집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육체로 나아가서 열심히 노력하며 변제해” 가겠다는 말도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출소 이후 매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면 그분도 원망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밤하늘

차대영

아들아
별들이 보이니?
저기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 말이야

별들 중에는
빛나는 별보다
빛나지 않는 별들이 더 많단다

빛나지 않는 별들이
밤하늘이 되어
별을 비춰주는 거지

아들아
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밤하늘도 봐주렴

너도 곧 알게 될거야
아침이 되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작품평 : 별이 빛날 수 있는 건 멀리 있는 별의 어둠 때문이라는 것. 세상에는 빛나는 별보다 빛나지 않는 별이 더 많다는 말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빛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나를 빛내주기 위해 어둠이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밤하늘 올려다보며 생각하고 싶어지는 시편입니다.



조 금 타 는 낭

정석범

석달 열흘 붉은 마음 이지요.

어찌다
견디다 견디다
터지고 마는 놈도 있지만
목 백일홍 한 그루의 질서
어찌면 저렇게 의젓 한지요.
피고 지는 순서
제 몸으로 열고 닫을줄 아는
우주 한 채

아랫 가지를 문지르면
귀신 같이 간지럼 타
윗 가지로 웃고마는
따뜻한 피 흐르는
조금 타는 낭

목 백일홍 붉은 그늘이
머칠째 간지럼 먹여
결국 이리 쓰게 만들지요.

※ 조금 타는 낭 : 간지럼 타는 나무라는 제주 방언입니다.

제주 방언 : 조금(간지럼), 낭(나무)

작품평 : 백일 동안 핀다 하여 백일홍이라 한답니다. 꽃들의 피고 지는 순서, 스스로 열고 닫을 줄 아는 우주 한 채라는 발상이 참 좋습니다. 나무도 우주 한 채. 사람도 우주 한 채. 붉은 나무 그늘 아래서 삶의 가려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유한 제주 방언의 의미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편이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얼 음 토 마 토

권기수

한 겨울 추위에 퐁퐁 얼어있는
얼음토마토 몇 송이가
화단 한 칸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볼품없이 얼어있는 얼음토마토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자기를 보고 힘을 내라고
희망을 주고

외로움에 눈물 짓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날 보러 오라며
사랑을 준다.

어쩌면 퐁퐁 얼어있던건
토마토가 아니라 나였나보다.

※ (7하 운동장에 실제로 있는 토마토를 보고 지었습니다)

작품평: 먹지 못할 토마토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쓸모없음의 쓸모를 떠올려봅니다. 퐁퐁 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때 거두지 못한 마음에 대한 반성도 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봄이 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시편입니다.



당신 모든 것을

서인철



밤하늘 북두칠성은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맴돌고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해도
한겨울 찬물을 뒤집어쓴다 해도
당신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늘
고개를 바짝 쳐들고
떡떡한 하늘 아래로
아침저녁으로 들락날락하는 바람에게
당신의 안부를 묻고 싶다.

지금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서
당신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세를 한탄 하지만
위태로운 줄 위에 외롭게 달린 광대처럼
땅으로 내려올 수도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다

휘영청 달 밝은 밤 눈물에 가려 흐려지는
그리움이며
양상한 나뭇가지에 혼자 울고 있는 작은 새
외로워서 잠 못 이루는 당신 모습 같다

봄날
아지랑이 흐물흐물 번져가는 그 봄날이 오면
당신이 못 견디게 보고 싶어져
당신의 치마폭 속에서 펑펑 울고 싶다

그리곤 세월은 저만큼 가버리겠지

작품평: 그리움을 어찌 그리움이란 단어 하나만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인간의 노력과 함께 스스로 다가가는 에너지일 것입니다. 한순간이어도 절박한 마음 그대로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축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유기견

최영석

감감하고 외진 컨테이너 박스 밑 새끼를 낳고...
밥동냥 다니는 개 한 마리
간간히 한 길 사거리에 위태롭게 나 앉아...
물끄러미 누구를 기다리다가...

목 선 울음을 토하고는
쳐진 아랫배 흔들며 묵묵히 새끼들에게 돌아간다..

봄 비 그친 아침...
나뭇잎, 풀잎, 꽃잎, 밤사이 떨어질 것은 스스로 다 떨어져
살아남겠다는 잎들만 생생히 나부끼며 아침햇살을 받아들고

양상한 저 개, 별 빛같은 새끼들 총총 놔두고...
저를 버린 누군가를 또 기다리고 앉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작품평 : 모든 존재는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았던 존재가 버려졌을 때의 상실감은 버려진 존재만이 알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았고, 누구를 사랑했는지,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는 뭐였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시편에서 외로운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말도 생각해봅니다.





내 방에서 본 작은 하늘

김민진

내 방 작은 창으로 보이는 하늘
내 방에서 올려다 본 하늘은 한손으로 가려지고
운동장에서 올려다 본 하늘은 두 손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

그럼
담장 밖 하늘은 얼마나 더 클까
내 기억엔 없는 파란 하늘이
언제쯤이면 그 하늘이 내 가슴 속으로 다시 돌아올까

난
작은 하늘에 묻는다
나 때문에 힘들지
작은 하늘은 물끄러미 바라만 본다
내 가슴속에서 숨 쉬는 그 하늘이 보고 싶다

두 손 모아 그 하늘에 던지시 건넌다
내방 창에서 바라본 작은 하늘이
내 가슴속에서 숨 쉬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작품평 : 하늘을 어찌 손으로 가리겠는지요. 눈을 감아야겠지요. 자유를 향해 바라보는 하늘이라면 이미 하늘을 향한 시인의 마음속에 더 넓은 하늘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내일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안산의 봄



김태성

사십 번의 추운 겨울을 보내며 늘 갖는 생각은 언제쯤 따뜻해질까? 이다. 누구든 영하의 온도가 되면 몸과 마음은 움츠러들고 인색해진다. 고작 2~3개월이면 지나갈 계절인데 한 달만 되어도 1년 내내 추웠던 것처럼 봄을 기다린다. 그리고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오면, 입던 롱패딩, 손에 끼던 털장갑, 목도리, 귀마개 등 방한 용품들을 옷장과 박스에 쌓아두게 된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집안에서 키우던 화분의 꽃나무들이 하나·둘 꽃망을 터뜨린다. 이렇게 또 간절히 기다리던 봄을 맞이한다. 그 많은 봄들 중에서 나는 안산에서 보낸 스물아홉 번째 봄을 잊지 못한다.

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3살 많은 형, 이렇게 네 식구이다.

막내아들로 태어나 온갖 귀여움은 다 받고 컸다. 실수를 하건 잘못을 하건 큰 걱정 없이 넘어갔다. 아버지께는 언제나 ‘막내야~’라고 불리었고 어머니께는 결혼 전까지 ‘우리아기’였다.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 형은 늘 모두에게 질투 섞인 불만을 표출했다.

소풍을 갔을 때도 운동회를 할 때도 부모님께서 늘 자식들을 위해 응원 오셨다. 나는 원래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 성인이 된 이후 장교로 군 입대를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막내가 고생하고 다칠까봐 처음에는 만류하셨지만 입관식때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보여 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했던 효도 중 가장 잘한 효도 같다. 군 생활이 끝나갈 때

잠 휴가를 나와 부모님 댁을 방문 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영원할 것 같은 나의 친구, 아버지께서 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다. 그때가 스물여덟 번째 겨울이었고 참 그때 많이 추웠다. 한 겨울의 앙상한 나무의 가지는 몸과 마음을 더 춥게 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돌아다니며 치료를 했다. 남은 시간이 3개월 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무엇이든 해서 시간을 연장시키고 싶었다.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에도 아버지는 내 곁에 계셨고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봄이 왔을 때 아버지 몸속에는 암세포가 전이가 안 된 곳이 없을 정도였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 대학병원에서 있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결국 안산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요양병원으로 오니 모든 가족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밖 정원을 그리고 공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신선한 공기가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리니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 그 사이 짐 정리를 하시고 어머니께서도 손 흔들며 형과 함께 걸어 오셨고 우리 가족은 몇 시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봄바람을 맞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우리 가족은 늘 그랬듯 아버지를 중심으로 봄바람을 즐기러 나들이를 나갔고 아프시기 전에 왜 이런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함을 후회하며 많이 울기도 했다.

그 봄에 벚꽃은 정말 활짝 피었고 비도 오지 않아 벚꽃을 오랜 시간 봤었다. 몸의 따스함을 느끼며 이 따스함이 계속 이어지길 바랬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렀고 이런 나의 바람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봄꽃들이 지는 그때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 해 안산의 봄은 내게 참 따뜻하고 슬픈 계절 이었다. 성인이 되고 가족끼리의 봄나들이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제는 내게 귀여운 딸이 있다. 그 딸과 손을 잡고 매년 봄을 맞이하며 나들이를 간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때 아버지를 통해 배운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가족들과 함께 떠난다. 내게 봄은, 가족과 함께 떠나는 봄나들이는 아픔과 후회, 희망이 공존한다. 지금도 집 베란다에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선물하신 '영산홍'이 매년 봄에 꽃을 피운다. 그 꽃을 손녀가 보며 할아버지를 느끼는 듯하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작품평 : 사람의 인생이 얼마만큼이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며 사랑해야겠지요.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따뜻한 추억이 꽃망울만큼이나 아름답게 표현된 글입니다.

봄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동주

몇해나 추운 겨울을 보낸 나머지, 얼굴과 손이 푸릇푸릇 하던 동결의 나에게도 봄을 앞세운 산향이 넘쳐, 바람 불지 않아도 이 높은 담안 세상에까지 닿았다.

두평 남짓 소심한 삶이지만, 봄향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는 몸은, 발돋움을 하고서야 간신히 좁은 창살 너머에서 비탈로 자리한 산을 만나게 된다. 저도 잠시 동안 맡겨진 가을을 보내고, 지난겨울 내내 민둥 머리처럼 남은 눈으로 무상하더니, 마침내 세상 가장 무심한 몸짓의 봄별 아지랑이로 하늘거린다.

시선이 닿은 그곳 비탈엔, 이곳저곳에서 꽃다발처럼 뭉쳐서 피우던 진달래가 산향으로 전하여, 마치 나에게 자신들의 봄이야 계절 다하면 온다지만, 사람의 봄은 어디에서 오는지 묻는 듯하였다.

오후 한 때의 호젓함으로 격리의 허공을 건너뛰면, 산향은 과거 속 먼 고향으로 마음을 먼저 이끌어 나를 데려가고, 그곳엔 행여나 가슴에 심어 놓은 웃음이 흩어 질까봐, 고향집 뗏돌 위에서 고무신 신고 지키고선 유년의 나를 만난다.

그토록 집요했던 욕망도, 가슴에 가둔 두터운 욕심도, 순수했던 그 때의 마음을 잃은 나머지, 시간의 무게를 온 몸으로 받는 지금에서야 후회하는 마음 하나가, 불가능했던 지난 어리석은

목적들을 돌이켜 본다.

소심한 일상에 그렇게도 선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 얼룩져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손가락 사이로 다 빠뜨린 지금에서야 절감하는 현실이지만, 뒤늦게서야 상실과 부재의 멧가 치르는 나는, 생각해 보니 생은 언제나 관대했었음을 불현듯 깨닫는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찾아온 봄이 또 무언가 시작할 기회를 준다면, 그건 먼저 좁은 창살 너머의 비탈에서 본, 내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은 죄를 돌아볼 일이었다.

키 낮추어 들어온 담안 세상 이곳에서, 아무도 나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끄러움! 그것은 사실 내 아는 모든 이에게 용서에 기대고자 하는 것 보다, 내 앞가림 때문이었다는 고백부터 해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시간들 그게 다 한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그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줄 시간. 햇볕 거미가 일으킨 아지랑이 속에 봄은 그렇게 오고 있었다.



작품평 : 봄과 인생을 비유한 작품에 진정성이 보이는 글입니다. 후회와 걱정만으로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면 평소 볼 수 없었던 진실이라는 친구가 조용히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관계의 온도



김황수

물은 온도의 법칙에 따라 행태를 달리한다.

차가움으로만 뭉쳐 있으면 얼음이 되고
 지나치게 열을 받으면 기체로 변한다.
 물은 액체 상태인 물로 있을 때
 가장 큰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너무도 차갑고 특정 모양새만을 고집하는 얼음은
 쓰임새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열을 너무 많이 받아 기체로 변해버린 물은
 어느 곳에도 남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의 법칙이 존재한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관계의 온도는 달라진다.
 사람들 간의 관계성은 꼭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빛의 속도로 친밀감이 쌓여가기도 하고 반면에 아아가게되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반감만 생겨 거리가 멀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의 온도는 체크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상태만을 체크하며 끝없이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 낸다.

전쟁에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온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려가며 맞춤 대처로 관계의 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온도는 상대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냉, 온, 열을 달리하여 응대해야만 마찰을 피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 관계의 온도는 때에 따라 생각이 발화점이 되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발화점이 되기도 하며 사람에 따라 감정이 발화점이 되기도 한다.

관계의 온도는 태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배려는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한 관계의 온도는 삶의 평화를 좌우한다. 물이 지나친 열을 받으면 기체가 되어 사라져 버리듯이 화를 발산하게 되면 어떤 관계도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찬 기운만을 내뿜고 살아가면 얼음이 있는 곳에 제약을 받듯이 관계에서도 제약이 따른다. 멈출려고 고집 부리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막힘없이 관계의 강을 이루어야 한다. 강물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온도를 맞추어야 다양한 생물들을 길러낼 수가 있게 된다.

나의 온도에 따라 관계의 온도는 함께 변한다. 나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중심을 잃고 다른 사람의 온도에 일방적으로 전이되어 살아가야만 한다. 나의 온도를 온전히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적정 온도를 찾아내어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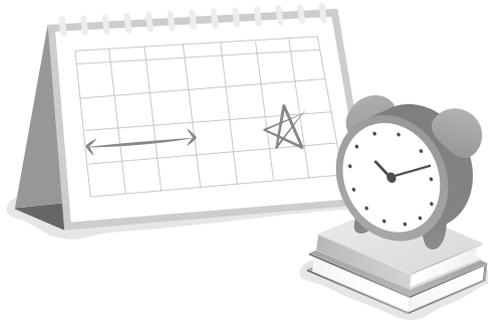
신은 사람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까지도 함께 주셨다. 다만 그 능력을 활용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과 또는 스쳐가는 감정에 사로잡혀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작품평 : 물과 사람을 비유한 글이 참신합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통탄하게 됩니다. 가다가 힘든 길에서는 한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하고 편히 가는 길에서는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덕을 쌓는 것이 물처럼 얼지도 않고 기체가 되지도 않으며 나의 길을 따라 순탄하게 살게 되겠지요.

소망



신성호

어김없이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몇 번을 보내고, 또 몇 번을 맞이했는지. 잠깐 헤아려 보아야 정확하게 알게 된다. 여러 번 보냈고, 또한 여러 번 맞이했건만. 올해도 어김없이 쓸쓸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허망하다.

생각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계해년을 보내고 경자년을 맞는 나의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럽다. 슬픈 기억과 아픈 추억들을 뒤로 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상만으로도 부족한 시간... 생동감 넘치던 봄바람의 기억과 치열하게 전투적이었던 뜨거운 여름을 넘어 높고 파아란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 볼 시간 없이 찬바람 싸늘한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다.

세상사 숨 돌리고 주저앉아 이마에 맺힌 땀을 식히기에는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고, 나 또한 턱까지 차오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숨 가쁘게 살고 있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지금만큼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마음속의 호사를 누려 차분함을 유지하고픈 심정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현실에서의 나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깊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충실하였는지? 내가 우리 모두에게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없었는지?

찢기고 헤진 만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을 찾아 그리도 정신없이 보냈는지? 아마는 나는 왜 사는지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한 것 같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의미를 남겼으며, 뜨거운 사랑을 했고, 적당히 긴장했으며 때로는 이기고, 가끔은 졌다. 승리를 흠치지 않았고 패배를 숨기지 않았다. 이런 모범 답안의 인생보다는 조금은 현실적인 해답을 구하고 싶다. 신문을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발령이 실린다.

‘물 먹는 사람’도 보이고 ‘물 만난 사람’도 보인다.

또한 ‘물 건너간 사람’도 보인다.

신문에는 세상에 담겨있다면 신문지에는 세월이 묻어 있다.

물을 먹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물을 만난 사람은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희생했기에….

또 물을 건너 사람은 정말 천수를 누리고 제 명대로 살다가 영면했을까?

살아온 시간이 얼마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예상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 화두가 무엇인가부터 생각하고, 고민해야겠다.

사람은 누구나 양 어깨에 가득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삶의 무게는 점점 늘어가고, 무거워진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의 기억들이 늘어감에 따라 조금씩 늘어가고, 죽어간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죽음 따위는 없다. 걱정과 후회가 서로 교차하면서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삶이 아닌가 싶다.

누구나 그렇지만,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인생사적 종말이다. 그 두려움의 정체는 단순하게 생이 끝났다는 사실보다는 죽음 이후에 내가 만나게 될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어떤 기대도, 희망도, 약속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다. 불가에서는 ‘생이 고행이면 죽음은 극락’이라고 말한다. ‘태어남이 축복이면 죽음은 영원’이라는 말과는 상반되지만, 생을 탓할 수도 없고, 죽음을 원망할 수도 없다. 이 또한 삶의 한 부분인 것이다.

10代의 감수성과 20代의 패기, 30~40代의 열정을 지나 50代의 내가 가지는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 그 동안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그렇겠지만.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저울을 대고, 올리고, 내리며, 재단하고 자른다.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이익과 손해의 기준이 앞서고, 번거롭고, 어려움을 피해 쉽고, 빠른 그리고 편리한 방법을 선호한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작고, 소중한 진리를 물어버리고 살아간다. 모든 일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림없는 속단이고 허황된 예단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정 지어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고, 그 선입견을 쉽게 떨쳐버리질 못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시행착오들을 되뇌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조금씩 능력을 배양하여 내실을 다져나가야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일함과 욕심 가득한 교만을 판단을 흐리게 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을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하게 단정 지어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합리화시켜 결론 지어 버리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거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위로하고, 위안 삼아보지만, 어딘지 모르게 찝찝하고, 껄끄럽고, 뒤통수가 뜨끔하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체념하기엔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래! 될 대로 되라.”라고 하기엔 어떻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고, 이치와 도리에 맞게 움직인다. 나의 잘못, 너의 잘못, 묻고 따지기 전에 마음이 떳떳하고 행동에 거침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이 되고, 좋은 말이 좋은 행동이 되며, 좋은 행동이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좋은 성격이 되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경자년 새해에 바라는 큰 소원이다.

부디,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소원한다.

2020년 경자년에 붙여.



작품평 :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는 말처럼 좋은 생각과 좋은 습관들이 미래의 나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인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삶은 끝없는 현재 진행형이므로 항상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마음을 습관화 하면 행복이 찾아 올 것입니다.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수필가 원정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읽고...

김영상



1. 들어가는 말

이 책의 저자인 파커파머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 가운데 한 명으로 교육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의 아홉번째 저술인 이 책의 원제는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이다. 민주주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저자의 문제의식이고,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들 - 지적·정서적·감각적·직관적·상상적·관계적·신체적- 이 수렴되는 중심부'를 말한다.

또한 온갖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 체념하지 않고 자아의 중심을 붙들 수 있는 자들, 선악의 구도가 명확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애매함과 긴장을 끌어안고 당위와 현실 사이의 비극적 간극을 가슴에 품고 견디는 자들을 저자는 '비통한 자(the broken hearted)'라고 말한다.

'우리'와 '너희'를 흑백의 구도로 나누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너그러움의 여백에서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으며, 의견이 아무리 상반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간성마저 부정하지 않아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의 저술작업을 마무리하고도 '살아남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고령임에도 이 책이 자신의 저서중에 가장 도전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만큼 저자의 그 동안의 사유와 실천을 집대성하여 미국이 처한 현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그 이면에 깔려있는 역사의 흐름을 긴 호흡으로 따라갈 수 있다.

II. 본론(내용요약)

1. 민주주의의 생태계

차이에서 오는 긴장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할 때 시민의 능력을 몇가지 확장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에 보다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 능력이란 8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1) 두려움 없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차이를 넘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는지를 배우기
- (2)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낯선 타자에 대한 공감을 심화시키기
- (3)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붙들면서 동시에 다른 견해에 대해 귀를 열어놓고 필요하다면 생각을 바꾸기
- (4)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진실에 의심이 들면 언제든지 대안적인 사실과 설명을 찾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정보와 지식으로 나아가기
- (5) 대화에 대해 파고들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매달리면서 그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더욱 충분하고 3차원적인 관점을 발견하기
- (6) 갈등으로 점철된 정치 현장에 들어가 복합적인 힘이 작용하는 역동성을 붙들어서 시민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정부가 국민의 뜻에 책임지도록 붙드는 힘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 (7) 집단적인 문제해결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증진하면서 여러 생각이 겨루는 가운데 보다 나은 해결과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 (8) 여러 차이로 가득찬 세계를 대면하면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고 다양성의 열매를 더욱 잘 만끽할 수 있기

민주주의는 긴장을 풀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고, 긴장에서 유발되는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러 일으키도록 의도되었다. 갈등을 풀어안으면서 창조적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생각과 행동 양식 그리고 서로에게 개방적일 수 있는 시민과 시민지도자들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한다.

2. 다섯가지 마음의 습관

21세기에 부응하기 위한 마음의 습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다음과 같다.

- (1) 우리는 이 안에서 모두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 (2) 우리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 (3) 우리는 생명을 복돋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 (4) 우리는 개인적인 견해와 주체성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 (5) 우리는 공동체를 창조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3. 민주주의의가 요구하는 자아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사람들을 개인적 자유와 집단적 책임으로 불러 들이면서 작동할 때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종류의 자아, 즉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적인 자아가 형성된다. 민주주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며, 가장 잘 작동할 경우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로 한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아는 사회가 시민들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의 역동을 다루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때 형성된다.

4. 민주주의의 벼룩(The Loon of Democracy)

미국의 건국자들은 구 유럽의 억압적인 정부를 개선하려 했고, 갈라져 나가는 문제들의 긴장을 끌어안기에 충분한 정치 구조를 창출할 필요를 느꼈다. 그들이 발명해 낸 민주주의 제도는 벼룩 처럼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정치적인 의견의 불일치가 자아내는 긴장을 끌어안고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직물을 다시 짜는 기회를 거듭 포착하는 것이다. 그 최상의 결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립의 해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다양성이 갈등으로 분열되지 않고 그것을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극적 간극족에서 희망을 갖고 행동하라.

다음의 네 단계는 저자가 연구한 모든 사회운동에서 발견된다.

- (1) 더 이상 분리되어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기
- (2) 일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 (3) 비전을 가지고 공적인 장으로 나아가기
- (4) 처벌과 보상 시스템을 변형시키기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운동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기안에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강한 빛 뿐만 아니라 깊은 어둠의 유산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오직 상상 속에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 평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의를 계속 꿈꿔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현재의 순간속에 살아간다. 거기에는 평화와 공포, 절망과 희망, 슬픔과 기쁨이 함께 깃들여 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어느것도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 않은 기분이 종종 든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Ⅲ. 나가는 말

이 책을 읽으며 그 동안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정치하는 엄마들’이 떠올랐다. 사실 정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에 틀림없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립의 해법으로 얻어지는 보다 나은 결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대화를 단절해온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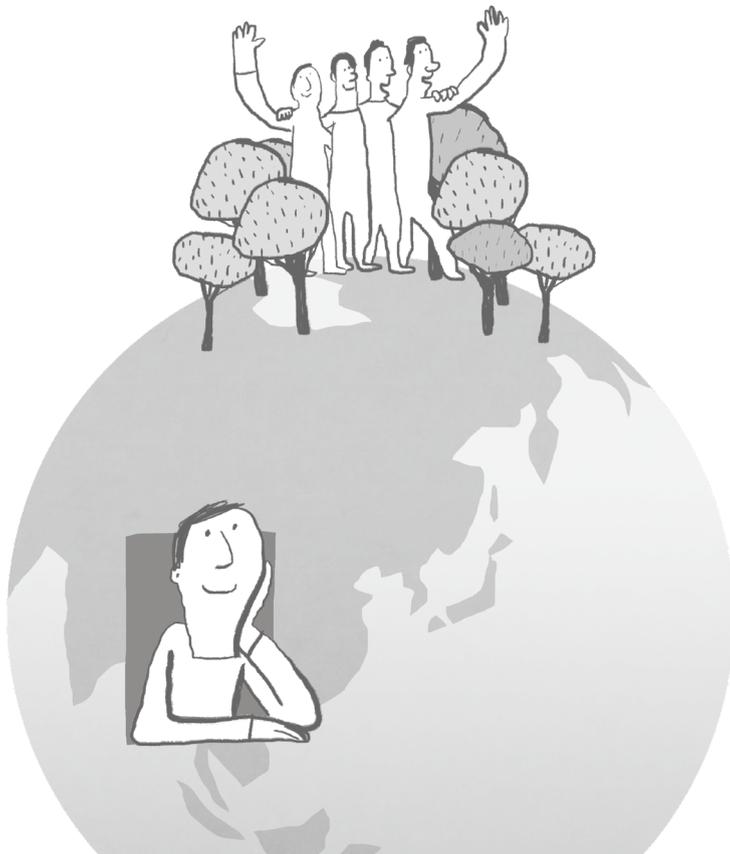
“의견의 불일치가 가져오는 긴장들을 참을성 있게 끌어 안는다면 삶의 모든 수준에서 딜레마들을 더욱 훌륭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자의 말은 정치적인 부분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다름’의 시각과 의견은 나와 다름으로 인해 내가 볼 수 없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과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시각과 의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비통한 자’의 개념은 최근들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세계시민’의 개념과도 흡사해 보인다.

주어진 형량에 대한 수용생활을 하며 인생의 재기를 위해 지난 실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해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비록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질지라도 체념하지 않고 자아의 중심을 붙들고 앞으로의 삶과 계획들을 대면하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본 독후감을 마무리 한다.

비통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작품평 : 민주주의 마음에 대한 한편의 발제문 같은 독후감을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내용 요약을 다섯 가지로 잘 분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여 어려울 수 있는 사항들이 쉽게 들어오네요. '양립의 해법'의 중요성도 언급해주는 좋은 글입니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를 읽고

김형돈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한반도에 일어날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강한 확신을 책으로 담았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무척 궁금했다. 그리고 짐 로저스가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와 위기에 준비된 투자 전략을 펼쳐 세상을 놀라게 한 것으로 유명하기에 더욱 관심이 간 것도 사실이다.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선 한반도를 찾은 이유’를 부제로 한 ‘들어가며’에 “작은 파도를 보지 말고 바다 밑에서 흐르는 해류를 파악하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며 동북아시아 작은 반도의 지정학적 사건들을 살피고, 앞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국제사회 변화의 흐름을 예측, 판단하는 게 이 책의 주제임을 분명히 했다.

제1장. 절대 흔들리지 않는 6가지 투자 원칙

- (1) 철저한 펀더멘탈 분석으로 기회의 순간을 잡는다.
- (2) 투자 시장의 역사를 알고 과거 사건을 살피다보면 투자 현장의 움직임이 보인다.
- (3)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절대 투자해선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가라.
- (4)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타이밍을 포착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버텨라.
- (5) 다수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공부해서 얻은 나름의 통찰을 믿고 투자해라.

(6)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식이 풍부한 분야에 투자해야 성공 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원칙에 따라 펀더멘탈로 분석했으며 북한을 2007년과 2014년 직접 다녀온 후 한반도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제2장.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주목한 이유

2015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짐 로저스는 “내 돈 전부를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다.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이 만났고, 1981년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중국의 모습을 안다. 그리고 베트남도 1980년대 개혁개방을 통해 1990년대부터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8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제 개방은 시간문제이다. 베트남과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 점진적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를 희망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공식 허가한 민간 시장인 ‘장마당’이 이미 44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시장 거래 대부분이 달러화·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닫힌 문이 열리는 순간이 기회이기에 북한의 개방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값싸게 기회를 선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미지의 땅이자 잠재된 기회의 땅이다.

제3장. 2020~2040 한반도 통합 경제 시나리오

남북한의 경제통합시 절약되는 엄청난 국방비로 북한의 부족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의 자본력과 우수한 기술력,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면 폭발적 잠재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가까운 일본의 아베정부는 한반도의 통합 경제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 해소해야 할 20배가 넘는 GDP 수준 차이, 열악한 시설과 기반 시설 등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남북한 인구 8,000만 명의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은 일본을 뛰어 넘어 세계 2위로 급부상 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발표다(2009년 발표).

가장 큰 걸림돌은 북미협상이다. 노련한 협상전문가 트럼프 대통령과 영민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가 잘 마무리되기를 응원한다.

제4장. 경제통합 한반도 투자의 미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H자형으로 구성된 3개의 핵심벨트가 중심이 될 것이다.

- (1)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 벨트 : 서울, 평양, 신의주, 베이징, 개성공단 확대 개발, 새로운 공단 개발
- (2)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 부산, 원산, 나선, 하산, 모스크바, 남·북·러 가스관 연결, 금강산·원산 개발
- (3) DMZ 환경 관광 벨트 : 생태·평화 안보(휴전선 지역)

특히 대륙 횡단 철도는 기존 해상으로 30~40일을, 철도를 이용하여 13~18일로 단축 가능하며, 초고속 화물은 부산서 모스크바까지 27시간이면 가능해진다.

제5장. 앞으로 5년 신 글로벌 투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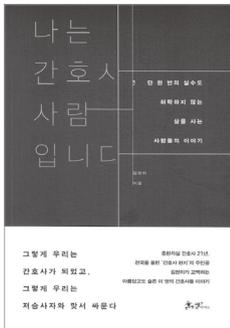
2020년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며 그 영향으로 금융회사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불러온 보호무역주의 먹구름으로 어려워지고, 일본 아베 정부는 금융완화 임시조치 영향으로 버틸 힘이 소진되어 위협하며, 중국도 증가하는 기업 부채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낮은 부채율, 흑자재정으로 훌륭한 투자처이다. 짐 로저스는 2번의 세계 일주로 168개국 여행을 통해 숨은 시장을 발견하고 선점해 독자적인 헤안으로 새로운 투자 역사를 쓰고 있다.

다가올 아시아의 시대, 그 동안 주시해온 우리 한반도의 경제가 통합되면서 펼쳐질 역동적인 변화를 상상하니 가슴이 설렌다.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 여행을 갈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감사한 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담장 안에 있는 내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와 앞으로 내가 살아갈 한반도의 비전을 느끼게 해주 감사하다.

작품평 : 한반도의 장밋빛 희망을 보는 듯합니다. 5장으로 된 내용 요약만으로도 한반도의 경제가 통합되면 펼쳐질 일들이 그려집니다. 글쓴이와 같이 서울에서 열차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여행 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를 읽고

박활주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는 저자인 '김현아 간호사'가 외과 중환자실에서 21년 2개월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있었던 에피소드(간호일지) 속에 간호사로서 살아오는 동안 가져야 했던 신념과 희생! 환자를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도서이다.

그 동안 TV에서 나왔던 수많은 메디컬 드라마나 각종 언론에서도 간호사들이 '주'가 되었던 적은 없었지만, 사실 알고보면 의료기관의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환자와 가까이 오랜시간을 지내며, 환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간호사라는 것과 한편 늘 약자이고, 부당함 속에 살아야 하는 것 또한 간호사라는 것을 책속에선 말하고 있다.

겉잡고 소심했던 김현아 간호사가 어떻게 신규 간호사에서 저승사자와 싸우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었는지, 21년의 시간동안 수 없이 흔들렸던 간호사의 정체성과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환자들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또 2015년 봄 듣지도 못했던 질병인 '메르스'가 찾아와 전국을 슬픔으로 잠기게 했을때에도, 근무하던 중환자실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여 격리대상자로 지정되고 14일간의 격리를 겪어야 했고 세상의 의심적인 눈길을 받을때에도, 묵묵히 중환자실에서 오로지 환자들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며 '간호사의 편지'를 병원 밖 이들에게 전해 간호사의 소명을 알렸던 일들...

중환자실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삶에 대한 간절함과 죽음에 대한 절망이 담긴 지나온 그 모든 순간 순간들을 '간호일지'는 담고 있었다. 평상시 장르소설에 심취해 있던 터라 공장 책꽂이에 서너 달이 지나도 손이 가질 않던 책이었는데, 어느 날 왠지 모를 끌림에 읽게 된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마지막장을 덮고서야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나의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간호사의 이미지는 병원에 가면 있는 사람. 의사 보조? 그렇게만 생각했었던 일종에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었지만,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를 읽고 난 후의 간호사의 모습은 '희생'이란 단어로 밖에 설명할 수 없고 그들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했다.

김현아 간호사가 21년전 나이팅게일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어가며 끝까지 환자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로 지내며 수많은 환자의 삶과 죽음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생명을 붙잡으려 끊임없이 저승사자와 싸워야했던 치열함과 환자에 대한 사랑은 숭고하기만 하다.

그리고 김현아 간호사는 말했다. 처음부터 꿈꾸던 직업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21년간 중환자실 간호사로 살아오며 했던 일들이 강한 자부심을 주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웠고 감사했다고 했다. 다른 간호사들보다 좋은 병원이나 많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고통에 시달리던 환자들의 얼굴이 편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좋았고, 아무도 듣지 않으려 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고 했다. 그리곤 얘기했다.

간호사의 일은 아름다웠지만 슬픔 자괴감으로 가득한 직업이었다고... 간호사들이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처우를 받는 것으로 모자라 많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인권에 유린당하고 있고,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또 언제나 간호사들에게 땀과 눈물로 환자들을 지켜내라 하고, 이익에 눈먼 병원들은 간호사들을 보호해주지않고 언제든지 바꿔 끼울 수 있는 기계 속의 조그만 부속품으로 밖에 여기질 않아 그저 살기위해 간호사들은 떠나고 있다고 했다.

김현아 간호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간호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에는 고스란히 담겨있다. 환자를 지키기위해 늘 강해져야 했지만 가장 약할 수밖에 없었던 간호사...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라는 책 제목의 '사람'이란 단어가 주고있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잔잔히

전해지고 있었다. 1년 전 서울의료원에서는 ‘태움’ 이름의 행위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다. 과연 고인의 죽음이 간호사들만의 책임인 것인가. 세상을 등진 간호사의 이름을 누가 알아주고 기억해 주겠는가 생각해본다.

나는 응원한다. 비록 간호사의 길을 접어야 했지만, 자신의 조그만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바라고 있을 김현아 간호사의 외침을...

지금도 환자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간호사들을 응원하고 응원한다.

작품평 :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직업으로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쓴 글에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애절함이 있지요. 의료기관의 최일선에 있지만 조연으로, 배경으로 각인된 사람. 저도 수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을

읽고...

최민우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이라는 흥미로운 제목과 함께 범복을 벗고 변호인으로 돌아온 지은이의 삶과 자아를 통찰하는 휴먼에세이라는 카피 문구에서 지금 저 자신과는 정반대라고 할수 있는 판사의 신분으로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이 호기심과 함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 하였습니다.

또한, 법이 치유력을 가질수 있다는 믿음으로 글을 써왔다는 작가의 작품평이 무척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기력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작은일에도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면서 생기를 잃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삶을 살고있는 것입니다. 치열해 지는 경쟁과 돈의 위세·정보 혁명 등 삶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만의 신념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이 진짜로 산다고 느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진짜 삶·본질적인 삶은 실존적인 자기결단을 통해서 사는 삶이며 다른 사람을 쫓지않는 주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주인공과 구경꾼,

실체와 이미지,
정직과 회피,
깊게 사는 것과 건성건성 사는 것,
모험과 안락이 진짜 삶과 가짜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은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작고 적기에 고통과 고난을 피할수 없는 것이며 일부러 고통과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더 풍부한 삶을 살라고 부르는 하늘의 손길일수도 있으니 고난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맞으며 그 숨은 의미를 찾는 것이 삶의 숙제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패를 통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언제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새롭게 출발하고 행동 할 수 있는 것이며 삶에서 결코 늦은 것은 없다고도 합니다.

능력과 행운만이 자산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고통과 고난이야말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우리들에게 바람과 희망도 보내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이 상처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이를 이기는 용서와 치유의 빛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희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또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본래 내 모습이라는 것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나다움이라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구나 내적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나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의 출발점이기에, 진짜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정직하고 용감하게 애써야함을 잊지 말라고도 합니다.

지은이의 오래된 가훈에서 따 왔다는 제목의 뜻이 오래 오래 저의 머릿속과 가슴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작게·적게·조심스레 마음먹고 행하라는 의미의 작을 소(小)

- * 생긴대로 꾸미지 않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나타낸다는 본디 소(素)
-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중의 하나가 웃음이라는 웃음 소(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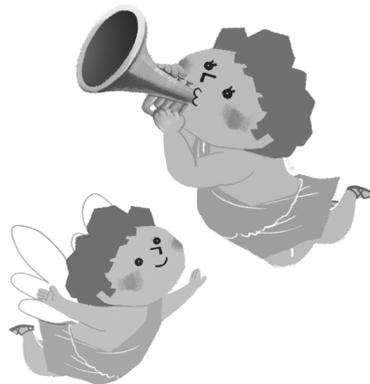
세단어가 합쳐진 소·소·소는 순 우리말로써 작게 본디 바탕대로 웃으며 사는 모습이 바람이 부드럽게 부른 모양과 같지 않을까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은이는 늘 자신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세상' 이럴 때 일수록 스스로 짐을 가볍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웃어주는 소·소·소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천사들이 날수 있는 것은 스스로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되어 보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小, 素, 笑에서 따온 예쁜 순우리말 소소소를 알게 되었어요. 본래 내 모습이 나다움인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정체성이란 무거운 질문이 앞에 있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가볍게 여겨 날수 있는 천사처럼 우리도 천사가 되어 날아보아요.



“독후감”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세월은 채워지는 것이다

정광부



며칠 전에 이발 공과에 가서 머리를 깎다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어. 젊고 패기 만만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백발의 중년을 넘긴 노인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 내 나이 벌써 60세, 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구나! 세월의 무상함과 시간이 소중함을 함께 느끼게 되었어.

내가 여기 들어와서 2년 이상의 규칙적인 생활로 심신의 관리를 제대로 잘 해오고 있어서 초라 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면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쏜 화살처럼 빨리 초고속으로 지나가고 있으니 촌각의 시간도 허비하지 말고 매일의 생활을 알차고 보람차게 보내야 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 있어.

2017년 11월 9일, 지난 27년간 이룩해온 회사의 몰락과 함께 내가 여기 들어 왔을 때에 절망과 회환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지. 깊은 한숨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 그때 당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접견을 오면서 나한테 바깥일은 염려하지 말라고하며 힘과 용기를 주었어.

당신은 내 앞에서 담담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었지만 접견을 마치고 돌아서는 당신의 뒷모습에서 당신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 당신의 축 쳐진 어깨를 보면서 내가 하루 빨리

여기 생활에 적응을 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당신과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되지않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하며 지난 2년여의 생활을 힘차게 해 오고 있어.

난 지금 여기가 나의 운명적인 시간과 공간이라 생각하고 있어. 여기 ○○훈련교도소가 기능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필기, 실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출소 후의 취업 준비와 자기 계발을 위한 공부를 하기에는 안성맞춤의 장소야. 난 조교의 신분이어서 자기 계발을 위해 공부할 시간이 많아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공과에서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분들의 기능사 자격증 획득을 위해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보충 학습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학업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나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여기 화성직훈은 나한테 운명의 종착역으로 향하는 중간역이며 수행의 도량이 되고 있어.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라 들었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달고 쓴 맛의 일들을 겪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생에 잘 채워 나가느냐가 삶의 참된 가치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소중한 두 아들과 주변의 시선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 나의 삶에 대한 의무이고 보람이 될 거야.

요즘 접견 오는 당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야. 자주 감기, 몸살에 걸리고 얼굴색이 좋지않아 보여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지금 우리 나이가 건강에 조심해야 할 시기이니 건강을 잘 챙겨야 해. 일주일에 4번, 4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영양제 꾸준히 먹어봐.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 당신과 함께 우리 집에서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며 살고 싶다. 지금의 시련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극복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할게.

다시 함께 할 그 날을 위해 몸조심하고 건강 잘 챙겨야 해.

작품평 : 서로를 걱정하고 신뢰하는 부부간의 채워진 세월이 봄날 목련꽃같이 순백으로 보이네요. 조교로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깊고 너그러운 마음씨에도 감사하고요.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는 날이 빨리 올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

박병오

눈물로 하소연하는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기를 천지신명님께 빌어본다.
 건강하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려무나. 이 모든게 내 탓이니 먼저 반성하면서...

나의 사랑 딸과 아들이!
 추운 겨울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을지 아빠는 걱정이 되는구나.
 매일 반복되는 수용 생활에 오로지 너희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작년 추석 명절을 부득이 내려가질 못해 성불하신 부모님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단다. 뵈지 못하는 이 아빠의 심정은 말로는 표현하기가 힘들다. 너희들에게 미안하고 애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함을 평생을 두고 가슴에 메일 것 같구나.

내 아들 딸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아프시다하니 걱정이 앞서는구나. 해도 아들이 든든하게 있어주어 조금은 걱정이 덜어지지만 이제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누나 그리고 몸이 불편한 엄마를... 아들이 너는 이제 집안의 기둥이란다.

내 아들이!



벌써 장가 갈 나이가 된 것 같구나. 아빠는 주어진 형기를 달게 받고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출소의 그 날을 기다리며 너희와 같이 하면서 그동안 너희에게 못다 한 아빠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고 너희들 가는 길에 보탬이 되는 아빠가 되고자 노력의 경주를 할 것이라는 것을 꼭 약속하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아 그리고 딸아!

아빠 없는 하늘아래 잘 견디면서 충실하게 직장생활과 건강관리 잘하여 아빠와 만나길 희망한다. 세상을 살다보면 아빠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이 벌어져 청천벽력과 같은 2년전의 일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 아빠가 이렇게 되고보니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는 애비로써의 미안하고 할 말이 없는데 너희들이라도 아빠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길 마음적으로 바랄 뿐 이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렇게 날씨가 춥다보니 우리가 함께 할 때 너희들과 지내온 세월에 대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아빠의 머리를 스쳐가는구나. 그래 시간은 가고 있고 너희들과 만나라 그 시점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행 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다가오리라 믿는구나.

우리 딸, 아들, 세상에서 엄마와 함께 제일 사랑 한단다.

사랑 그리고 애정 가족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세삼 알게 되었다.

아들아 잇을 뵈 했구나.

그래도 아빠는 나의 이웃들인 장애우들 1~3급 그리고 “시”지정 요양원의 부모님들을 도우면서
아빠를 생각하며, 꼭 지키며 살아다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요 이런 배고픔을 아는 사람만이
반드시 자신감을 얻어 가난 속에서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배려심을 갖게 되었구나.

자원봉사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3급 장애인
아빠보다 더 못한 불편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외적인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서로
나누며 살 수 있다는걸 알았구나.

남들보다 배움이 부족한 아빠와 엄마는 열정을 가지고 한발 더 열심히 다녔고 성실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딸 그리고 아들아 내가 빨리 나아가서 아직도 도와줄 분들이 너무도 많단다.
꼭 결초보은 할 거란다.

그럼 여기서 고하자 안녕~.

2019.1월 사랑하는 아빠가

작품평 : 아버지라는 어깨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포개지고 겹쳐지네요. 미안함과
걱정, 용서까지 사랑의 표현입니다. 봉사와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봉사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새길, 「겨울호」를 읽고

김정재

작품평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함께 참여하고 희망과 미래를 꿈꾸며 이 책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처음 만난 계기부터 진솔하게 적어 내려간 글이 잔잔한 울림을 주네요.

아마 이곳에 대부분이 그랬듯, 처음 새길을 접하게 된 건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일명 병아리 방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쯤이었을 것이다.

나를 포함해 3~4명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만남 사이에도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낯선 이와 대화를 하는 것에 어색했던 나에겐 많이 불편하게 다가왔고, 결국 그들의 시선을 회피하기 위해 방 한구석에 있던 책 한권을 손에 쥐었다.

낙서투성이에 찢겨지고, 많이 훼손되어 제목조차 알 수 없는 책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느껴지는 그들의 관심을 모면하기 위해 책 속에 머리를 숨겼다.

그 속엔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을 하다 이별을 하면 세상 모든 노래가 다 내 이야기 같듯이, 그 안에서 수많은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과 추억,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지난날의 그리움이 나를 마주하였다. 또한 그 당시 내게는 부족했던 죄의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존재하고 있었다.

도망치기 위해 집어든 책이었는데... 가볍게 시간이나 보내

려고 했던 것이 나를 자극하고 있었다.

조금 혼란스러웠다. 교도소에 들어와서 희망도 미래도 다 버렸는데,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책속에, 여러 명의 나는 현실의 나와 달랐다.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용기도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가 가득했다.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치고만 있던 나에게는 충격이었고 그런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일까? 끝까지 읽지 못하고 책을 덮었다. 그리고 다행히(?) 나의 조사가 시작되어 그것에서부터 도망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끝이 난줄 알았다.

조사가 끝이 나고 교도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양도 세어보고, 우유도 마셔봤지만 다 헛수고였다. 병아리 방에서 읽었던 책의 내용이 너무나 선명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밤을 새버렸다.

다음 날, 행한 나를 보고 방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 봤고, 차마 어떤 책의 내용 때문이라고 이야기 못한 나는 별거 아니라며 얼버무렸다. 그리고 점심때 쯤 유일하게 방에서 어색함이 덜했던 A군이 뭔가를 들고 와 나에게 건넸다.

“형 같은 사람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얼떨결에 받아들인 것은 책이었고, 내가 병아리 방에서 읽었던 책과 많이 비슷했다. 겉 표지엔 「새길」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 책이 맞았다. 군데군데 낙서와 찢겨져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A군이 건네준 건 낱기는 했지만 읽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다. 떨렸지만 담담한 척 책을 읽어 나갔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때의 감정이 살아났고 그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때요? 괜찮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아무 대답도 못했다. 부정하기엔 티가 나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긍정하기엔 부끄러웠다. 하지만 싫은 건 아니었다. 그렇게 A군의 도움으로 새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읽는 것을 넘어 참여까지 하게 되었다.

얼마 전 눈사람을 주제로 한 2019년 새길 겨울호가 나와 언제나처럼 읽게 되었다. 여전히 그곳에는 수많은 내가 있었다. 그리고 처음과는 달리 용서의 글에도 내가 존재했다.

누구는 이야기 한다. “여기서 쓴 글이야 그게 그거지”, 그리고 또 누구는 질문을 한다. “이런 거 한다고 달라지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자신있게 말한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진심이 담겨 있다고, 그리고 달라진다고! 절망뿐이던 내가 이렇게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거 안보이냐고! 말이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새길을 읽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새길에도 다양한 나를 만나게 해준 꿈과 희망 그리고 반성의 마음을 가진 수많은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새길 겨울호를 읽고

박용우

작품평

문장력이 좋고 나뭇을 떠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지요. 간혹 꾸며진 듯한 글과
억지스러운 글에서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구요.
마음 한 구석을 썰렁하게
했다는 비판적 글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봅니다.

항상 새길이 나올 때가 되면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무척 기다려진다. 내 글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수용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 담긴 진솔한 이야기이며 어찌 보면 나도 같은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 한 분 한 분의 글을 읽어나가면서 같이 공감하고 때로 안타까워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피해자나 부모님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빌 때는 나도 다소곳이 머리가 숙여지고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그러기에 언제나 연인을 기다리듯 새길을 기다리곤 했다.

글에 있는 면면을 보면 어찌 이렇게 딱할까. 어려서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던 기구한 운명도 많고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쳐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빛만 늘어가고 가족들을 깊은 수렁에 몰아넣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 말고는 할 게 없었던 그들에게 범죄의 유혹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강이 되고 말았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당하며 분노에 찬 울분을 풀길이 없는 지경에 이른다.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일을 꾸미게 되는 것이다.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한 번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바보 같은 선택이 결국 영어의 몸이 되었고 때늦은 후회와 눈물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주변 모두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세상은 공평하다. 모두에게 기회는 똑같이 열려 있는데 수용자들에게는 어쩔 그렇게 불공평한지. 하는 일마다 액이 끼어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히다. 여기서 지내다 보면 수용자들도 대부분 선한 사람들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분들도 어찌 보면 선하게 살아왔던 분들인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며 기델 언덕이 그 어디에도 없게 되자 돌변한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우리 같은 수용자들에게 비난과 멸시보다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이 사회를 불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누구나 믿고 사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번 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이 덜하고 안쓰러운 심정이 비교적 가벼웠으며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많았다. 겨울호 테마가 눈사람이어서 자녀들과 어울렸던 기억이나 그 옛날 부모님과 함께 눈을 굴리며 눈사람을 만들었던 아련한 추억이 깃든 내용들이었다. 나 역시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눈사람은 커녕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일관했고 피곤하다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함께 해주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도 잘 키운 아이들에게 고맙기만 하다. 요즘 같으면 빵점 부모인데 우리 아이들이 클 때는 여가 활동이 보편화 되지 않은 때라 그나마 넘어갔다고 본다. 이번 글을 읽으며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잘해 주리라 반성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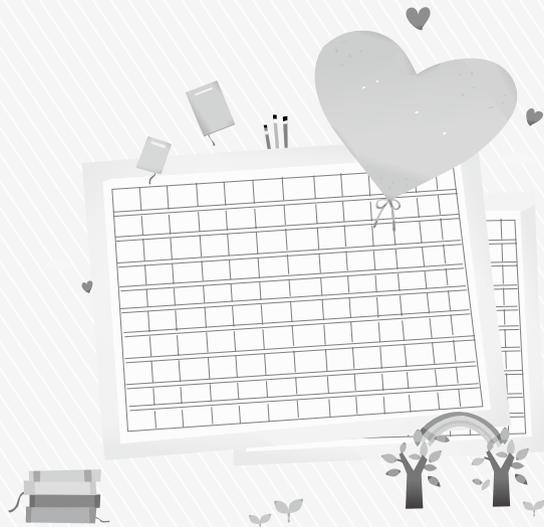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용서의 글이 마음 한 구석을 찢렁하게 만들었다. 대부분 젊은 수용자였고 현재 재판 중인 사람도 있으며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 좀 아쉬움이 있다. 조성진 님의 글은 용서의 대상자도 없고 방덕규 님의 글은 딱하기까지 하다. 절도죄로

새길 거울호를 읽고

수감 중인 분이 교도소 안에서 범죄 수법을 배워서 출소했다는 충격적 내용도 있고 재범자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글이 허공을 맴돈다. 또한 오세근 님의 글 역시 송유관 도유범이라는 동종 범죄를 세 번이나 저지른 분이 눈물과 고통으로 3년째 수용 생활을 한다는 말장난은 믿음이 안 간다. 눈물의 고통은 초범일 때나 쓰는 말이 아닐까. 마약사범이나 보이스피싱 관련자도 진정 뉘우침에서 쓴 글일까 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용서를 구한다는 진정성이 약하게 보인다.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과 형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관심에서 우리나라는 사죄여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의 마음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무한한 사죄여야 한다. 또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다짐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출소하자마자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어찌 뉘우치는 사죄가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번에도 새길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중한 가족을 다시 생각게 하는 청량제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나도 글을 써보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새길 겨울호를 읽고

문병익

작품평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환경 탓만 하는 것도, 극복하고 이기는 것도 모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인성교육 강사님의 글이 많이 와 닿으셨군요. 그 마음이 환경을 개선하고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그 속에 있는 희로애락이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절절히 느껴지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죠. 몇몇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좋은 '환경'속에 태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이러한 환경은 많은 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이것을 쫓고자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유함속에 '희'와 '락'이 가득한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노력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큼의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태어나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결핍의 환경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은 부서지기 쉬워 보이고 험난하기에 '노'와 '애'가 많은 곳이라 이곳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심리적으로 꺼리게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새길지를 보고 다른 감상은 제쳐 두고서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교도소, 언급조차 꺼리는 이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환경을 은은한 빛으로 조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또한 한명의 수용자로서 이곳에 있으면서 종교 활동과 작업 등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주변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새길 겨울호를 읽고

거의 없었는데 새길지의 존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추천을 받아 처음 접하게 된 새길지의 겨울호는 제 마음의 종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했던 환경들(대부분 어려운)에 대해 여념 없이 담담히 써내려가도록 조성해 주어 읽는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나만힘든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게 되는 가슴 따뜻한 서적이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도관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함께 구성된 이 새길지는 그저 형식뿐인 사업이 아닌 소통과 참여도 이루어진 진정한 교정, 교화작업이라고까지 느껴졌습니다. 때에 맞는 적합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시, 수필, 감사노트, 용서를 구합니다, 수기, 독후감 등 다양한 글의 형식으로 풍성하되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타 세상에 등장한 수많은 문학지 못지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구성뿐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알차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놀라움을 새길지 감상의 첫 번째로 꼽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심’입니다.

이 새길지 에는 전반적으로 글쓴이들의 진심이 느껴진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나름의 자신의 입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진심으로 글을 표현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 맺히게 만듭니다.

특히 ‘용서를 구합니다’에서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서 표현한 수용자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라보다보면 이 사회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고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며 스스로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니 마음이 흔들리고 울려서 이것의 유익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직원 분들을 비롯한 외부위원들의 글을 읽다보면 수용자들이 빠르게 재사회화 되어서 달라진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또한 제가 새길지 속에서 느낀 진심일 것입니다. 특히 외부위원 수필의 형기종료, 출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해주신 김기훈 인성교육 강사

님의 글이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읽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36년간 교도관으로 생활하시면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적으신 이 글로 수용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응원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님께서 분석하여 적어 놓으신 내용은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로써 불우한 환경 속에서 죄를 범하기 쉬운 수용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며 공감했습니다.

이처럼 진심이 느껴지는 수용자 종합 문예지 새길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수많은 환경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어렵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지내오다 관성에 이끌리듯 이 곳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전국의 많은 수용자들이 새길지를 접하고 계속 읽게 된다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좌절하고 굴복하며 재범하고 또 재범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뭔가 느낀 것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살아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도 이제 새길의 팬이 되어 내 주변의 수용자들에게 추천 해주려 합니다. 좋은 글을 담기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길지를 읽고

최대호

작품평

『새길』이 난로같이 따뜻했군요.
공감되고 감동적인 글이
많아서이지요. 나의 글도
그 일부라는 것 아시죠. 글이
전해주는 힘은 생각보다 더
크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셨다니 용서를 구할
용기가 곧 생길 거예요.

〈새길이라는 마음속 난로〉

2018년 겨울호 새길지에 내 글이 실린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다.

사실 글이라는 것을 써본적도 없었을뿐더러 펜을 손에 쥘다는 것조차도 어색했었는데 막상 당시 주제였던 “첫 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추억이 글꼴으로 피어났고 내가 글을 쓴다기 보다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저 손을 맡겼던 것 같다.

그렇게 새길지라는 거울을 통하여 어른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속에서 없어진줄만 알았던 순수했던 나의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고 나의 추억이 담겨진 그 새길지는 아직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

요즘도 가끔 내가 쓴 글을 다시금 읽어 볼때가 있는데 정말 이지 그렇게 글을 잘 썼다는 사실이 가끔 나조차도 깜짝놀랄 때가 있다. 아마도 새길지가 불러넣어준 희망과 나의 나이 많은 친구였던 아저씨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쌓았던 우정을 진심을 담아 글로 풀어 내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나의 글이 실린 새길지 외에도 나는 새길지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리고 매년 새길지를 기다리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악인으로만 비추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 둘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인 새길지를 읽어볼때면 정말이지 그 글을 쓰신 분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순수함과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기에 <진심, 감정, 인생 등> 자신이 느끼고 하고 싶었던 말을 글로 더 잘 풀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누군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준적이 없었는데 새길지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겨울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이거나 괜스레 삭막하게 느끼기 마련인데 눈으로 뚜렷한 형상을 보진 않았지만 이번 겨울은 새길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호를 통해서는 다들 바쁘게 사느라 그랬던 것인지 기억하려 해도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잊고 지내던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잠시 묻어두며 살아왔던 동심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누구에 글이 더 좋고 문장력이 뛰어난지를 떠나서 글이 실린 모든 분들의 글 속에서 진심과 숨어있는 순수함을 느끼었고 그들의 아픔도 같이 나누며 마음속으로나마 응원도 하게 되었다.



새길지를 읽고

이처럼 나는 새길지에 실린 모든 글을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마음을 끌어 당기는 글들이 있는데 그건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코너에 실린 글들이다. 내가 이곳에 온지도 어느덧(글을 쓰는 시점으로)2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첫 재판을 받던 당시에 그저 억울하다는 마음 뿐이었지만 지금은 뒤돌아 나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봄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 적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에 용기는 가지지 못하였는데 그 분들께서 쓰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라는 글은 읽을수록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문득 글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드는 생각이 있는데 과연 나는 남은 2년여라는 시간안에 그 분들처럼 용기를 가질수 있을까?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새길지 전해주는 글의 힘을 받다보면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용기가 생길 그날을 기다리며 이 두서 없는 글을 줄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글들로 겨울을 채워주신 53분의 글쓴이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새길지 관련하여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